

코스피	3184.42 (+12.07)	코스닥	796.81 (+2.81)
금리 (1년)	2.475 (+0.025)	환율 (원/달러)	1392.10 (+1.10)

조선업 훈풍에도 '노조 리스크'... 공정 차질·신뢰 흔들

HD현대 조선 3사 파업 잇따라 노란봉투법 앞두고 강도 높아져 해외거점 확장에도 불확실성 ↑ 철강·차 등 제조업 전방위 확산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파업 강도가 높아지면서 공정 차질과 대외 신뢰도 추락 우려가 제기된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해외 이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는 전날 첫 부분 파업에 이어 이날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겪었다. 노조는 4일과 5일에는 파업 시간을 7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다섯 차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최근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합병 문제까지 겹치며 노사갈등이 한층 심해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이번 합병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고용 불안과 전환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울산 생산 현장이 단순 하청 기지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정규직 신

규 채용 확대, 숙련 노동자 처우 개선, 강제 전환배치없는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2일 '2025년 임금교섭 타결 조인식'을 열고 정규직 노조와 합의에 도달했지만 하청지회와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공장 점거 파업 재발 방지와 사과 약속에 관한 조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하청지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협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HD현대는 전날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첫 선박 건조에 돌입하며 '마스(MASGA)'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알렸지만 업계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새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정 지연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까지 추락할 수 있다"며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 등으로 국내 조선업계에 유례없는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로 산업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갈등은 조선업에만 국한되지



더 굳건해진 北·中·러 동맹... 新냉전시대 오나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의 텐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참석 정상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않고 주요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철강 업종 노조도 잇따라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부터 5일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3~4일에는 출근조별로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고난도 시술부터 AI 진단까지 K-의료기기, 글로벌 공략 가속

파인메디кс·메디웨일·유한양행 해외인증·승인으로 성장 본궤도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난도 시술기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K-의료기기의 경쟁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파인메디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증을 늘리며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파인메디스의 진단 내시경 시술 기구 '클리어 팁 EUS-FNA/FNB' 2세대가 시판전신고(510K) 허가를 승인받았다.

클리어 팁은 초음파 내시경에서 병변 진단을 위해 조직 샘플을 채취하는 세침흡입술에 사용하는 기구다. 국내 기업으로는 파인메디스가 처음 국산화에 성공해 2017년 7월 1세대 제품을 출시했고 2018년 11월 미국 FDA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2023년 세계 최초로 버튼형 구조로 설계한 2세대 제품을 내놓으며 핵심 고급 제품군을 확대 구축했다.

파인메디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사업 영역을 넓혀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브라

질 위생감시국에서 클리어 팁 1·2세대 모두에 대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해 중남미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

전성우 파인메디스 대표는 "이번 FDA 승인은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내시경 시술기구 시장에서 존재감을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메디웨일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6년까지 미국 FDA에서 '닥터는 CVD' 드 노보(De Novo)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웨일의 '닥터는 CVD'는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기존 심장내과에서 표준으로 이뤄지는 예측 검사인 심장 CT(컴퓨터 단층촬영)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췄다.

이와 함께 메디웨일은 특허 전략을 구축해 닥터는 CVD 제품력을 강화한다. 메디웨일이 미국에서 막막 영상을 활용한 질환 예측 기술과 관련해 보유한 특허는 총 6건이다. <4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기술탈취 증거개시제, 실효성 vs 우려 교차

與, 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전문가 현장조사로 증거 확보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민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현장을 조사하고 확보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영업기밀이 오히려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증거개시제도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소송

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미리 교환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고, 주요 증거는 피고 측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제도와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례로 국내에 증거개시 절차 미흡으로 기술탈취 갈등을 겪는 기업이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된 국외에서 소송을 해 대규모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국익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당국의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이어져 사법기관의 업무량

이 과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한데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핵심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에서 시행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의 도입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 '공정경제' 분야대표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놓고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與초선, 나경원에 "국회 기능 훼손... 70명 이력으로 윤리위 제소"
- ▲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그러다 '이재명 총통제' 말 나와" /사진 뉴시스

- ▲여 "원민경, 여가부 장관 적임자" vs 야 "피해 호소인 왜 침묵했나"
- ▲김정은·시진핑·푸틴 천안문 망루에... '한미일' 對 '북중러' 대립 구도 심화

- ▲국힘 "여학생 뺨때리는 최고진, 교육부 장관 자격 없어... 사퇴하라"
- ▲장동혁 "尹 집권 적절한 시기·방식 고민... 전당대회 약속 지킬 것"

‘갤럭시 S25’ 효과… 삼성, 日 스마트폰 점유율 3위 기업

SAMSUNG

일본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기준 점유율 작년 6.3%→2분기 10%
애플 49%, 샤프 6%, 샤오미 5%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입지를 넓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핵심 기능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기능에서 강점을 보이며 글로벌 점유율을 늘려가는 추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5년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10%로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초 6.3%였으나 두 자릿수 점유율에 진입한 것이다. 애플은 49%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일본과 중국의 경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쟁사들을 제치고 약진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일본 브랜드인 샤프는 지난해 2분기 점유율 10%에서 6%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샤오미가 8%에서 5%로 하락했다.

일본 시장은 애플 아이폰 선호도가 강해 그동안 한국 스마트폰의 ‘무덤’이라 불려 왔다. 한때는 삼성 로고를 지우

고 제품을 판매했을 정도로 국내 기업에 문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점유율을 회복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전략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총력을 벌이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4일 독일 베를린 IFA2025에서, 애플은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애플파크 스티븐잡스 시어터에서 각각 신작 출시 이벤트를 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FE와 갤럭시탭 S11, 애플은 초슬림폰 아이폰17 에어를 포함해 아이폰 17시리즈를 공개할 계획이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S25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으며 글로벌 출하량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일 일본에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을 출시했다. 제품 출시 첫 주 현지 1위 이동통신사 NTT도코모가 운영하는 도코모 온라인숍 판매 순위에서 폴드7이 1위를, 플립7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삼성이 일본에서 갤럭시 Z 시리즈를 출시한 첫 주에 도코모 온라인숍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갤럭시가 구글과의 협업으로 AI 기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한다. 젊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폴더블폰 제품군을 다양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따른다.

삼성전자의 폴드7과 플립7 출시 효과는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3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공개 예정인 S26에서도 이번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갤럭시 Z 폴드7·플립7 판매량이 전작 대비 15%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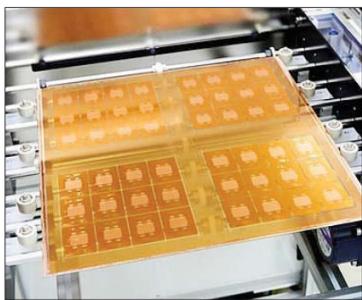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韓 기업 ‘반도체 유리기관’ 주도권 잡는다

글로벌 선두 ‘인텔’ 사업 철수

SKC 미국 자회사 ‘엡솔릭스’
美에 세계 첫 유리기관 생산라인

삼성전기, 인텔 출신 인재 영입
LG이노텍·BH 등 초기단계 연구



SKC 미국 자회사 엡솔릭스의 반도체용 유리기관.

/뉴시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로 꼽히는 유리기관 산업의 주도권이 한국 기업으로 일부 이동할 조짐이다. 인텔이 최근 프로젝트를 철수하며 시장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SKC와 삼성전기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들어 연속된 적자와 비용 절감 압박 속에 유리기관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2분기까지 연구개발(R&D)부문 축소가 진행됐고, 지난 7월 이후에는 내부 개발을 중단하고 외부 공급망 활용 검토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도가 큰 신규 소재·패키징 분야보다 본업인 파운드리와 CPU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강 듀안(Duan Gang) 등 핵심 연구 인력이 삼성전기로 이직하면서 사업 정리 기조가 명백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과 맞바꿔 89억 달러(한화 약 120조380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입했으나, 해당 자금은

미국 내 로직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와 국방부의 ‘보안 반도체 독립화’ 프로그램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위험도가 큰 신규 소재·패키징 분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선두기업의 이탈은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에 탄력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SKC 미국 자회사 엡솔릭스와 삼성전기가 대표적이다. 엡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에 세계 최초로 유리기관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7500만 달러(한화 약 1043억원) 규모의 칩스 액트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아직 본격 상업화 단계는 아니지만 시제품 생산 및 파일럿 라인을 통해 조기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삼성전기 역시 인텔 출신 인재 영입을 계기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LG이노텍, BH 등도 초기 단계 연구에

가세하면서 국내 기업 전반에 걸쳐 유리기관 기술 확보 경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리기관은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인공지능(AI) 반도체 패키징에서 기존 유기기관(ABF)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꼽힌다. 초박막·저결함 특수유리를 활용해 열팽창 계수를 낮추고, 배선 미세화와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AI와 HPC(고성능컴퓨팅)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는 평가다. AI 서버 확산과 HBM 수요 증가 역시 유리기관 상용화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다.

상용화 시점을 두고는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빠르면 2년 내 초기 양산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기술 난이도와 수율 문제를 고려하면 2030년 이후에나 본격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는 기존 ABF 대비 경쟁력이 확실해 장기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유리기관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본격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뒤따를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기존 실리콘 유리기관 대비 비용 경쟁력이 뚜렷해, 장기적으로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파업 장기화, 공장 해외이전 부채질”

>> 1면 ‘조선업 훈풍에도…’서 계속

이미 범용 반도체와 2차전지가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철강까지 동반 타격을 입게 된다면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과 높은 인건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합병도 국내에서 생산 현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

황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미국 관련 사업에는 미포를 활용하고, 중형 선박은 베트남·필리핀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외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해외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원희희 기자 wkh@

LG엔솔, 벤츠에 15조 규모 배터리 공급

2029년부터 2035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100GWh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이번 계약을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 최대 규모로 평가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 및 메르세데스-벤츠 AG와 각각 75GWh, 32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의 계약은 미국에서 오는 2029년 7월 30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메르세데스-벤츠 AG와의 계약은 유럽에서 2028년 8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계약은 대당 70kWh 기준으로 약 15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업계가 추산한 46시리즈 배터리의 가격은 kWh당 90~110달러 수준

으로, 계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급 조건은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물량이 LG에너지솔루션의 차세대 주력 제품인 46시리즈 배터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원통형 46시리즈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단축한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계약 규모만 놓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까지 체결한 46시리즈 계약 중 최대 물량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메르세데스-벤츠와 북미 및 기타 지역에서 50.5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역시 46시리즈 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 계약은 총 150GWh를 넘어섰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건설·R&D투자 상향… 2분기 GDP 0.7% ↑

한은, 속도치 보다 0.1%p 상승

우리나라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1%까지 끌어 올리려면 하반기 0.7% 이상 나와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속도치와 비교해 0.1%포인트(p) 상승했다.

김화용 국민소득부장은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기성 실적치가 예상을 상회하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투자와 소프트웨어 투자들이 이어

지며 상향 수정됐다”며 “수출입은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상향돼 상향 수정됐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을 말한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2.5% 증가했다.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이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0.8% 감소했지만,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이 각각 0.7%, 0.9% 증가해 0.8%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부, 13.6조 긴급경영자금 푼다... CPTPP 가입방안 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최대 270조 무역금융 동원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공급
철강 분야 등 내수 진작책 병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과 최대 27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동원하는 대책을 내놴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지원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긴급자금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진공·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3조6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대해 저리 운영

자금(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추가 0.3%p 인하한다. 수은은 6조원 규모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신보·기보는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목표를 256조원에서 14조원 늘린 270조원으로 상향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적용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업 신용도나 한도 제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 상황과 프로젝트 특성을 종합 검토해 기존 규정상 제한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상호관세 50%가 적용돼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이차차액 보전과 공급망 보증 상품 신설했다. 해외 수요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자

동차·가전·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내수 진작책도 병행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전기차 전환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 ESS 보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유턴보조금(국내복귀 지원금) 지원 비율은 57%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건설·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이차전지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하반기 별도로 마련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합의됐으나 세부 품목은 추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으로 불발된 CPTPP 가입 검토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의결했으나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업데이트했고 회원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또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수산 분야 민감 이슈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경제권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전 세계 GDP의 15% 규모 시장에 추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출은 연간 20억~30억 달러 늘고, GDP도 최대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농축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추후 업종별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대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하반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50% 확대

중기부, 4.6조 자금·보증 신속 지원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2000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 확대와 함께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해 품목별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확대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 한도도 10억원(기존 5억원)으로 올린다.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을 통해 미국 관세 부과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을 50% 확대한 3억원(자부담 포함시)까지 늘린다.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는 한시적으로 2배(3000만→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미국에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한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하반기에 꾸려 수출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는 범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또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가치를 현지에 알리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도 강화한다.

바이오(충북), 해운(부산), 섬유·안경(대구) 등 지역별 특화·주력품목별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과 무선 전자기기 보안 등 미국·EU 등에서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주력품목 선정 후 검증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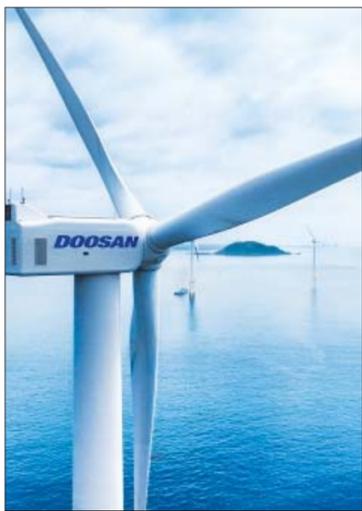
제36회 화도진축제
9.5.(금)~9.7.(일)
동인천역 북광장/화도진공원 일원

9.5(금) · 조선미술사 공연 · 뮤지컬 화도진 · 개막식 및 개막 축하 공연	9.6(토) · 청소년 프린지 페스티벌 · 어영대장 축성행렬 ·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9.7(일) · 어린이 댄스 대회 · 대학 페스티벌 · 구민 노래자랑 · 폐막식 및 축하공연	화도진공원 · 역사토크 콘서트 · 무형문화재 공연 · 화도진 버스킹
--	---	--	---

※ 부대행사: 전통군영체험존·체험 및 홍보부스·먹거리 장터

K-해상풍력, '기술·수주·정책' 삼박자 맞춰 글로벌 성장 도약

HD·LS·두산, 해상풍력 기술 확보
변전소·케이블·터빈 성과 가시화
내년 3월 정부 대책 시행으로 탄력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성장 기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
/두산에너지빌리티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을 발판으로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LS전선·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주요 기업들은 해상변전소와 해저케이블, 대형 터빈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500메가와트(MW)급 해상변전소에 대한 국제 설계 검증서를 획득했다. 이번 모델은 국산 기재를 적용한 표준 설계로 14MW급 풍력발전기 35기의 전력을 송출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S전선은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1600억 원 규모의 '포모사4' 프로젝트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따내며 10회 연속 수주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9년 첫 진출 이후 대만 정부의 상용화 1단계 모든 사업(8건)을 수주했고, 2단계 사업에서도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 자회사 LS마린솔루션도 해저케이블 매설 계약을 확보하며 국내 시공사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올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입찰을 계기로 대형 해상 풍력 터빈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5년 풍력사업에 뛰어들어 이후 현재까지 347.5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국내에 공급했으며 제주 탐라(30MW)·전북 서남해(60MW)·제주 한림(100MW) 등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최초로 10MW급 해상풍

력 모델에 대한 국제인증 취득했다. 다만 글로벌 선도 기업인 GE·지멘스·베스타스 등이 14~18MW급 대형 터빈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있다.

정부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입지제도를 비롯해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해 국내 풍력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글로벌풍력에너지협회(GWEC)는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전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가 연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은 커지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 기술력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의 핵심 경쟁력이 터빈·하부구조물·부유식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돼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변전소·케이블 등 특정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시장을 넓히는 동시에 터빈 분야 기술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은 탄소감축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는 동시에 국내 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은 기술보다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제 단지 조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도 터빈뿐 아니라 케이블·변전소 등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오른 분야까지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김병기 “배임죄 손보겠다”... 손경식 “노조·상법 개정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여의도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
與 “기업자유 보장, 형사책임 합리화”
경총 “노란봉투법·상법 보완 시급” 지적
정년 연장 등 민감 현안논의 반영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면담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6단체 대표단과 만나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단 면담에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 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 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제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라며 “새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경쟁과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세심한 후속조치를 우려했다. 그는 “경제계는 법 개정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여당의 말씀 취지는 알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은 상법 개정안의 보완적 성격으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며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거나 법정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등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이 새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도전적 경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같은 중요 주제가 논의 될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반영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의료기술 혁신·산업 융합... 제약업계, 새 성장 동력

>> 1면 '고난도 기술부터...'서 계속

망막 영상뿐 아니라 혈압, 지질 수치 등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태근 메디웨이 대표는 “닥터눈은 혁신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라며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국내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신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냈다.

유한양행은 일찍이 국내 의료기기로는 처음 미국 FDA의 드 노보(De Novo) 승인을 획득한 오큐클을 보유한 리



'닥터눈 CVD'
/메디웨이

센스메디컬과 차별화된 성장동력 마련에 나섰다. 리센스메디컬은 급속정밀 냉각기술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냉각 치료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양사는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에서 체형 연구 등을 추진한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점차 국내

기술력 독점, 국산 제품 개발 등이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약뿐 아니라 여러 산업군의 융합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는 공동 연구개발 등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에 기업 반발 확산

>> 1면 '기술탈취 증거개시제...'서 계속

반면, 증거개시절차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회원사들은 경제적 산업적 부담 및 대기업 편중 우려, 다국적 특허괴물(NPE)이나 해외 기업의 제도 악용 및 남용 가능성, 기술·영업 비밀 우려 등을 증거개시제도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증거개시제도

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증거 편재 현상의 해소다.

특히 의료, 환경, 제조물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개인이 기업 등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됨으로써 증거가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는 견해가 있고,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해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민감정보에 대한 비공개 장치를 두는 한편, 경제적 약자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SK하이닉스 AI의 미래를 높이 끌어올리다

AI기술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우리의 앞선 AI 메모리로부터 시작됩니다



李 대통령 “기업성장이 국가 발전”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

李 대통령, 새솔다이아몬드공업 방문
가장 큰 과제로 ‘회복·성장’ 꼽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R&D 지원
데이터 디지털·AI 전환 필요성
정부, 균형 발전 전략 지속 약속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3일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강소기업 기업을 찾아 “모든 기업이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고, 시장 개척에도 성공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 그게 결국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패드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기술 속의 기술이 이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 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 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 제조업이 고용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책 제안 발표를 통해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우리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는 15대 슈퍼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제조 4강 도약’을 위해 혁신·시장·생태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스타트업·미래 도전 기업·우름 기업·슈퍼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구 개발(R&D)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수출보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규제 컨설팅 제공 ▲방산·재생에너지 분야 등 수입 의존도 높은 분야의 자립화 ▲앵커기업·중소기업의 직접화된 제조 혁신 허브 확대 ▲클러스터별 R&D·실증센터·인력 양성·규제 특례 지원 ▲정책금융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강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디지털과 AI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이를 위해선 ▲AI 개발 및 현장 보급으로 모범사례 발굴 ▲2만5000여 기업에 대한 업종 특성에 맞춰 스마트 공장 지원 ▲기술탈취 관련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을 방안으로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장관 중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출신에게, 산자부 장관은 대기업 출신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헤어졌다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장관들은 잘 챙겨주길 바란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해당 산업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 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져서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듯하다”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방에서 기업 활동 하시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압수수색 무산까지 무기한 농성”

내란특검 압수수색 시도에 투쟁 돌입

국민의힘이 연일 이어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본청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며 압수수색 대상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연속 압수수색을 위해 찾아온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전 긴급 최고 위원회와 연이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특검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지금 1층에 와서 있다. 여차하면 바로 우리 본관 2층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사무실을 들이닥쳐서 자료를 다 빼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을 보면(계엄 해제)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3~4시간 동안에 명함, 다이어리, 영수증 등을 다 압수수색하겠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영장을 제대로 된 검토도 안 하고 발부한 법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낱짜와 내용을 정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다 할 테니 알려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단 ‘영장을 받았으니 영장대로 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총 후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근무하는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대단히 불손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호히 반대하며, 지금 이 시간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 특검팀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쳐 압수수색을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붙였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공범으로 허위 선동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해 왔다.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여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려는 노골적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이제는 민주당 특검의 영장 집행으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남발,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로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보수를 꺾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우리당의 몇몇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영장 집행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내란 카르텔의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호·조지연 의원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국민 생명 사색하려고 했던 세력이 특검 당연한 정상 수사에 대해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중수청, 행안부 밑으로 가나... 7일 결론 날 듯

輿, 의총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중대범죄수사청 거취 결론 못내려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도 쟁점
고위당협회의 통해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거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7일 고위당협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잘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을 입법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

하시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참으로 높다”며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정부조직법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치열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줘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을 통해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리진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 검찰청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간 바 있다. 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결론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오는 7일 당정 조율 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총에선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도 오는 4일 오전 개최한다. 5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전문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고위당정 전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오늘 양대노총 위원장 만난다

한국·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등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오찬 회동을 갖는다.

3일 대통령실 및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김동명·양경수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인 지난 2월 양대노총을 방문한 적은 있다.

이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들과

만나게 되는 배경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4.5일제, 정년 65세 법제화 등 주요 노동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6년간 공식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는 불참해왔다. /서예진 기자

세종대학교

세상 世 으뜸 宗



2025 QS 아시아 대학평가
TOP 1%

2024 Leiden 세계대학평가
국내 일반대학 1위

2025 Times 세계대학평가
국내 7위

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모집전형

2025. 9. 9.(화) ~ 9. 12.(금)

학생부교과 : 지역균형

학생부종합 : 세종창의인재(면접형, 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 5도,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논술우수자 :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

군계약학과 : [교과] 항공시스템공학(공군)

[종합] 사이버국방(육군), 국방시융합시스템공학(해군), 국방시로봇융합공학(해병대)

실기우수자 : 회화과, 패션디자인학과, 음악과,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예체능특기자 : 체육학과



세종대학교

보상부터 생활까지... 보험업, 일상 플랫폼 진화

가입·이용·보상 전 주기 디지털화
젊은층·고령층 접근성 동시 공략

캐롯, 여행 준비 등 일상형 서비스
라이나생명, 24시간 종신보험 가입
약사, 고령층 배려 간편모드 도입

보험업계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축으로 직판(D2C) 확대와 청구·보상
간소화, 생활형(예방·관리) 서비스까지
품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입·이용·보상 전 주기를 앱 안으로
끌어 들이고 젊은 고객 유입과 고령층
접근성 강화란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
한 움직임이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고객 여정을 바탕으로 앱 내 추천·설계
를 정교화하고 있다. 상품은 보다 유연
하게, 보상은 더 간편하게 재설계하는
추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
험은 지난 7월 기준 모바일 앱 가입 회
원 100만명을 달성했다. 월간활성이용
자(MAU)는 45만명, 일간활성이용자
(DAU)는 9만명을 기록했다. 가입자
구성도 40대 이하 비중이 약 60%로 젊
은층 기반이 두드러진다.

캐롯손보는 ▲주행데이터 기반 운전
습관 개선(드라이브) ▲보험 안전·건
강관리 결합(굿워크) ▲여행 준비·안전



라이나생명 디지털 전용 종신보험 이미지.



라이나생명 약사손해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 전면 리뉴얼 이미지. /약사손해보험

관리(굿트래블) ▲차량관리(키케어) ▲
주차 교육(주차스쿨) 등 보험 미가입자
도 쓸 수 있는 일상형 서비스를 전면
내세워 '사고 이후 보장'에서 '사고 이
전 예측·예방'으로 역할을 넓혔다. 생활
형 접점이 자동차·여행자보험 등 핵심
상품의 간편 가입, 유연한 보장 설계,
신속한 보상 프로세스와 결합해 앱 이
용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평가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보험과 안전습
관생성 서비스를 함께 성장시켜온 결
과 앱이 많은 고객의 일상 속 필수 도
구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은 디지털 전용 종신보험
(다이렉트료채우는종신보험)을 선
보이면서 인터넷을 통한 빠르고 편리
한 가입을 전면 내세웠다. 장기보장
상품의 디지털 직판에도 속도를 내겠다

는 포석이다.

남성 60세 이하, 7년납 기준으로 경
과기간에 따라 7년 시점 99.9%, 10년
119.5%, 15년 130.5%, 20년 142.4%의
환급률을 제공한다. 가입 가능 연령을
20~70세로 넓히고 전화상담 없이 24시
간 완전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
록 설계했다. 특히 신용카드·카카오페
이·토스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도 지
원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편의성을 강
화했다.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은 당사 최
초의 디지털 전용 종신보험"이라며 "디
지탈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
능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짧은 기간
납부하고 오랜기간 보장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약사손해보험은 PC·모바일 웹·앱

어디서든 동일한 화면과 기능을 제공하
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
lti Use)' 전략을 적용해 브랜드 경험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화면·동선
재구성이 두드러진다. 메뉴는 ▲상품
▲보상 ▲MY ▲혜택 등 고객이 자주
찾는 항목 위주로 재배치했다. 사진 등
록·계약 조회·보험금 청구·긴급출동 등
핵심 기능을 '바로가기'로 묶어 원클릭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층
을 고려한 '간편모드'를 도입하고 보상
페이지 상단에 청구 버튼을 배치했다.

약사손보는 "이번 홈페이지·모바일
리뉴얼은 고객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
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신규광고 교통문화 편 9일만에 500만회 조회

삼성화재는 신규 광고 영상 '삼성화
재가 바꾼 교통문화 편'이 지난 8월
18일 공개 후 9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500만회를 넘어서는 등 고객들에게 호
평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교
통문화 정착을 위해 삼성화재가 추진
해 온 다양한 활동을 한 주인공의 인생
여정 스토리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광
고에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 연구소
가 우리나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추
진해 온 주요 사례들을 '안전이 당연한
세상, 삼성화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함축적인 광고 카피로 표현했다.

또한 광고 속 주인공의 패션 변화, 2
G 폴더폰, 종이지도, CD와 테이프 등
당시의 소품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
아들어 2000년대 감성을 섬세하게 담
아내어 고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NH농협생명 100세까지 암치료 보장 치료비안심해2NH보험

NH농협생명은 3일 100세까지 암치
료 보험금을 보장하는 신상품 '치료비
안심해2NH건강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최초 암 발생 이후에 매
년 1회 암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
계됐다. 특히 재발·전이·타원발암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장
기 치료 과정에서 고객의 경제적 부담
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시에는 1구
좌당 5000만원을 보장해 고액 치료에
도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이후 2027년 서울대병원, 2031년 서울
아산병원 도입 예정으로 국내 주요 병
원에서 해당 치료가 가능하다.

한화손보 펠테크연구소 뉴년기 트렌드 리포트 하프 시그널 첫 공개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
PLUS) 펠테크연구소는 3일 김난도 서
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끄는 트렌드코
리아팀과 함께 '뉴년기(new+갱년기)
트렌드 리포트'의 첫 번째 시리즈 '하프
시그널(Half Signal)'을 공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갱년기를 단순한 호
르몬 변화로 한정하지 않고 인생 절반
 즈음에 올리는 새 출발 신호로 해석해
'뉴년기'로 이름했다. 갱년기를 삶의
방향을 다시 짜는 전환점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이번 리포트는 남녀 갱년기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결과
를 기반으로 했다. 총 4부작으로 기획
된 '뉴년기트렌드 리포트'는 올해 하반
기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갱년기에 대
한 사회적 태도 변화와 신체·정신 건
강, 관계의 재편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
게 다룰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저축은행 자산 순위 재편... SBI저축은행 '1위' 탈환

SBI 상반기 총자산 규모 14.2조
OK 13.1조, 한국투자 8.5조 순

저축은행 자산 순위가 한 분기 만에
재편됐다. SBI저축은행이 OK저축은
행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
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위 자리를 유
지해 톱3 구도가 굳어질 지 관심이 쏠
리고 있다.

3일 경영공시에 따르면, SBI저축은
행의 상반기 총자산 규모는 14조2042
억원으로, 지난 1분기 말 대비 7969억
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OK저축
은행은 4869억원 감소한 총자산 13조
1744억원을 기록했다.

한 분기 만에 SBI저축은행이 업계 1

위 자리를 탈환했다. 앞서 OK저축은
행은 지난 1분기 말 13조6612억원의 자
산을 기록하면서 12년 만에 1위 자리에
올라선 바 있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이 신규고객 확
보를 위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며 상
황은 금세 역전됐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4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했다. 특히, SBI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뱅
킹 플랫폼인 사이다뱅크 예금 금리는
최대 3.2%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상반
기 기준 SBI저축은행의 총수신은 11조
7580억원을, OK저축은행은 10조 9773
억원을 기록했다. 공격적인 고객 확보
로 SBI저축은행은 1분기 대비 수신 잔

액이 7544억원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
로 고객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OK저축
은행 수신잔액은 5961억원 줄면서 격
차가 벌어졌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3위 자리를 지
키면서, 업계 상위 구도가 굳어지는 모
양새다. 올해 2분기 한투자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8조52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
비 1617억원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0년째 업계 3위를 유지하고 있
다. 당기순이익은 92억원으로, 전년 동
기 대비 46억원 증가했다.

한편, 대형 저축은행들은 호실적을
이어가며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
운데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자산 규모
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고전을 이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CK저축은행의 경우 총
자산이 지난해 1분기 4조5148억에서
올해 1분기 3조6154억원으로 약 1조원
가량 줄어 들었다. 드림저축은행 역시
같은기간 4조2099억원에서 3조3080억
원까지 총자산이 감소하면서 외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은 부
실채권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
하면서, 외형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중
소형 저축은행은 상황이 다르다"며 "예
금자보호한도 상향률 대형 저축은행
에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기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
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美 금리인하 가능성에 금값 연일 경신... 3600달러 목전

국제 금 선물, 온스당 3592.2달러
2거래일 연속 '신고기' 기록

금(金)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3600달러를 목전에 뒀다.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준을 향한 금
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의 고용 지표 둔화 전망에 따라 조기 금
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협상
도 불발해 금 수요를 뒷받침했다.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일(현지

시간)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592.20달러(약 501만원)에 장을 마쳤
다. 직전 거래일보다 76.10달러
(2.16%)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
에 다시 경신했다. 특히 이날 장중에는
금값이 온스당 3602.3달러까지 올라
3500달러를 넘긴지 하루 만에 3600달
러를 넘겼다.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향한 압박
을 강화하는 가운데, 오는 9월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리 인하
가 본격화 할 것이라 전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리
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해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임명한 쿡 이사의 임기
는 오는 2038년까지로, 연준 이사가 해
임된 것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최초
다. 쿡 이사는 즉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트럼프는 쿡 이사의 후임
을 공공연히 지명하는 등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에 따르면 미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오

는 17~18일 개최되는 FOMC에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86.41%로 전
망한다. 이는 지난 7월 말 전망치인
37.66%와 비교해 48.75%포인트(p) 높
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금리가 50bp
(1bp=0.01%p)이상 인하될 것이라 전
망도 86.39%에 달한다. 7월 말 전망치
는 40.16%였다.

3일(현지시간)부터 잇달아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전망도 금값 상
승을 부추기고 있다. 종전 협상 불발 이
후 다시금 격화하는 우크라이나-러시
아 전쟁도 금 수요를 끌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금값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기아 'EV5', 중형 SUV 새 기준 가족 맞춤형 전기차 시대 연다

'더 기아 EV5' 오늘부터 계약 시작 1·2열 모두 넓고 실용적 공간 구현 확장형센터콘솔·시트백 테이블 탑재 2열 플랫 시트 아웃도어 최적화 81.4kWh 배터리 460km 주행 가능

“전기차 시장에서 아쉬웠던 중형급 차량을 출시하며 가족 중심 특화모델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프로젝트 스페이스 라인에서 진행된 기아의 전동화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이하 EV5) 사전 공개 행사에서 정원정 부사장은 중형급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V5는 기아가 EV6를 시작으로 EV9, EV3, EV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E-GMP 기반 전용 전기차 모델이며 정통 SUV 바디타입을 적용한 패밀리 전용 전기차다. 기아는 EV5가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편의사양과 공간 활용성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V5의 실내는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을 바탕으로 기아만의 스포티함과 새로움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EV5는 크래시패드를 가로지르는 라인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패턴을 적용해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크래시패드는 자연물을 깎아내고 다듬어 만들어진 조각처럼 아름다운 조형물의 느낌을 준다. 또 EV5는 전장 4610mm, 전폭 1875mm, 전고 1675mm, 축간거리 2750mm로 기아 스포티지와 비슷하지만 실제 실내 공간은 기존 준중형차 대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췄다.

특히 1041mm의 2열 레그룸은 동급 최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프로젝트 스페이스 라인에서 진행된 EV5 미디어 데이 행사장에 전시된 EV5 GT-라인. (원형사진) EV5의 시트백 테이블. /양성운 기자

고 수준으로 넓고 편안한 후석 공간을 제공하며, 2열 평탄화 설계로 1718L 적재 공간을 확보해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아웃도어 마니아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센터콘솔은 1열과 2열 탑승객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마련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시트백 테이블을 적용해 2열 탑승객이 이동중에도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최소화했다.

주행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낮췄다. EV5는 81.4kWh의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160kW급 전륜구동 모터와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췄으며,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295Nm, 전비 5.0km/kWh에 1회 충전 시 460km 주행이 가능하다. 또 350kW급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0분이 소요됨에 따라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한다.

기아는 EV5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다. EV5에는 운전자가 자동차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 보조 기능으로 ▲가속 제한 보조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가 기본으로 탑재됐다. 현대 차그룹 최초로 적용된 가속 제한 보조는 차량이 시속 8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고 오랫동안 밟아 가속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클러스터 팝업 메시지를 통해 경고를 하고 2차로 음성 메시지 경고를 하며 가속을 제한하는 기능이다.

EV5의 판매 가격은 롱레인지 ▲에어 4855만원 ▲어스 5230만원 ▲GT 라인 5340만원이다. 정부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기본 트림인 에어를 기준으로 4000만원 초반부터 EV5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4일부터 EV5의 계약을 시작한다.

정원정 부사장은 “EV5는 정통 SUV 바디타입 기반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EV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표 모델”이라며 “합리적인 패밀리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EV5가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세계 첫 High NA EUV 도입

SK하이닉스 AI 메모리 시장 선도 이전 M16에 업계 최초 도입 1.7배 정밀·2.9배 집적도 구현



SK하이닉스 차세대 미래기술연구원장 부사장이 3일 High NA EUV 장비 도입 기념 행사에서 축사를 진행중이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혁신을 위해 양산용 'High NA EUV' 장비를 도입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 최초로 양산용 'High NA EUV' 장비를 이전 M16랩(Fab)에 반입했다고 3일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환경에서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첨단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높이려면 미세 공정 기술 고도화가 필수다. 회로를 더 정밀하게 구현할수록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력 효율과 성능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2021년 10나노급 4세대

(1nm) D램에 EUV를 첫 도입한 이후 최첨단 D램 제조에 EUV 적용을 지속 확대해 왔다. 하지만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요구될 극한 미세화와 고집적화를 위해서는 기존 EUV 장비를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 장비가 필요하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의 '트윈스캔 EXE:5200B'로 High NA EUV 최초의 양산용 모델이다. 기존 EUV(NA 0.33) 대비 40% 향상된 광학 기술(NA 0.55)로 1.7배 더 정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2.9배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차세대 냉난방공조 R&D 거점 마련

창원에 500억 투자해 연구센터 설립

LG전자가 경남 창원에 차세대 냉난방공조(HVAC) 연구개발(R&D) 거점인 'LG전자 HVAC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LG전자는 국립 창원대학교와 냉난방공조 분야 R&D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연구센터 설립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약 500억원을 투자해 국립창원대 내 연면적 4천평 규모의 첨단 연구센터를 짓는다. 2027년 상반기 내 완공될 연구센터에서는 에어컨부터 ▲히트펌프 ▲칠러 ▲데이터센터용 냉각 솔루션까지 차세대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연구하게 된다.

LG전자는 초대형 냉동기 '칠러', '액체냉각솔루션' 등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을 HVAC 사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특히 컴프레서, 모터, 펌프, 열교환기, 인버터 등 냉난방공조 제품의 5대 코어테크 기술을 고도화하고, 최근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에도 적극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연구센터에는 국내 냉난방공조 연구 시설로는 최초로 극고온·극저온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공조 제품 연구와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는 연구센터가 HVAC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프라 및 클러스터 구축으로 선행·부품 연구 및 플랫폼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현대모비스, 전동화·전장 앞세워 글로벌 수주 확대

민헨 IAA서 미래차 기술 공개 HWD·인휠 등 혁신 전장 전시 유럽 완성차와 협력 기회 모색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전장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에 3회 연속 참가해 차세대 핵심 기술력을 입증하고 글로벌 핵심 기술 수주 성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IAA는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였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2021년 개최지를 뮌헨으로 옮겨 재출범한 유럽 최대 종합 모빌리티 전시회다. 올해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

현대모비스는 'Deeper Look to Progress'를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를 주

도할 전동화, 전장, 램프, 새시·안전 분야 핵심 기술 20여종을 출품한다. 부스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퍼블릭 전시와 함께 핵심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부스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우선 일반 관람객들이 오가는 퍼블릭 공간에는 기아 'EV9'에 현대모비스의 첨단 전장 기술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HWD)' 기술을 적용해 전시한다. HWD는 특수필름을 적용한 차 유리창 전체를 스크린 삼아 주행정보, 내비게이션, 플레이리스트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2029년 양산을 목표로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공동 개발 중이다.

프라이빗 부스에선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상대로 맞춤형 제품을 소개한다. 핵심기술을 ▲친환경 전동화 ▲통합 제어 솔루션 ▲시각 연계 혁신기술 등 3가지 테마로 구성해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현대모비스의 '배터리시스템'(BSA) 포트폴리오도 전진 배치된다. 이에 더해 구동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 모듈화한 'EDU 3-in-1'과 차량 사양별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통합충전 제어장치'(ICCU), 각 바퀴에 전기모터와 브레이크, 기어 등을 통합해 4륜 독립 구동이 가능한 '인휠시스템' 등도 전시된다. 현대모비스가 매년 업데이트해 온 미래형 디지털 콕핏 'M.VICS 6.0'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와 램프 혁신 기술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전시 기간 중 주요 유럽 완성차 고객사를 초청해 다양한 신기술 경쟁력 및 양산 역량을 강조하고 추가 사업 협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IAA에 처음 참가한 2021년 당시 5조 원대였던 현대모비스 매출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8조 원을 넘어섰다. /양성운 기자

삼성, B2B·AI 솔루션 체험형 쇼룸 첫선

방콕에 동남아 최대 규모 BES 개관

삼성전자가 동남아 무대에서 기업 간 거래(B2B) 제품과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쇼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9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 위치한 '킹스퀘어' 복합 쇼핑몰에 AI 기반 B2B 체험 공간인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BES)'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태국 BES는 898㎡(약 270평) 규모의 쇼룸으로, 동남아 내 삼성전자 쇼룸 중 최대 규모다.

방문객들은 ▲스마트싱스 B2B 영역으로 확대한 '스마트싱스 프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빌딩 통합관리 솔루션 'b.IoT' ▲삼성전자만의 보안 플랫폼

쇼룸 '삼성 녹스' ▲사이니지 콘텐츠 운영 플랫폼 '삼성 VXT' 등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한층 높여주는 삼성의 AI 기반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홈' 콘셉트로 구성된 공간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7형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등 한층 고도화된 AI 홈 경험을 선사하는 삼성전자 신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에어컨 쇼룸'에서는 ▲슬림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무풍 1Way 카세트 ▲네 방향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무풍 4Way 카세트 ▲원형 디자인으로 수직·수평으로 기류 제어가 가능한 360 카세트 등 삼성만의 독보적인 성능과 디자인 시스템에 여건을 만나볼 수 있다. /차현정 기자

K-반도체기업, 차세대 기판·패키징 기술 공개

KPCA Show 2025

기술력 기반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서
삼성전기 글라스코어 기판 소개
LG이노텍 '코퍼 포스트' 기술 시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첨단 반도체 기판 및 패키징 전시회에 나란히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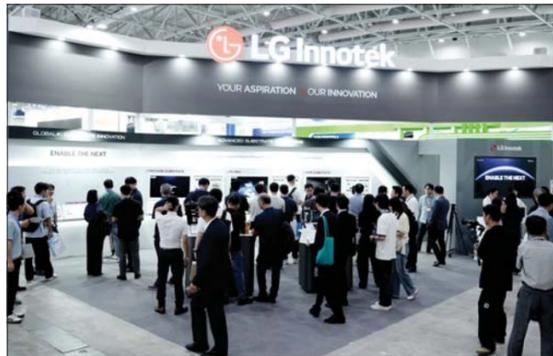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3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PCA 쇼 2025'에 참가한다. KPCA 쇼는 한국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KPC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전문 전시회다.

삼성전기는 이번 전시회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판 ▲AI & 전장 패키징 기판 두 개의 테마로 부스를 운영한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판에서는 현재 양산 중인 하이엔드급 AI·서버용 FCBGA의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해당



삼성전기 'KPCA Show 2025' 전시부스.



삼성전기 LG이노텍 'KPCA show 2025' 부스 전경.

LG이노텍

제품은 일반 FCBGA 대비 면적이 10배 이상, 내부 층수는 3배 이상 구현된 최고난도 사양으로, 삼성전기는 국내 유일 서버용 FCBGA 양산 기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고성능화에 대응해 ▲실리콘 인터포저 없이 반도체와 반도체를 직접 연결하는 2.1D 패키징 기술 ▲SoC(시스템 온 칩)와 메모리를 하나의 기판에 통합한 Co-Package 기판 등을 선보인다.

특히 삼성전기는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라스코어 패키징 기판

을 소개한다. 글라스코어 패키징 기판은 기존 기판 대비 두께를 약 40% 줄이고, 대면적 기판에서 발생하는 휨 특성과 신호 특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LG이노텍은 전시 부스 가장 앞부분에 하이라이트존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퍼 포스트 기술을 선보인다. 코퍼 포스트 기술은 반도체 기판에 작은 구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납땜용 구슬인 솔더볼을 얹어 기판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솔더볼을 기판에 직접 부착하는 기존 방식보다 솔더볼의 면적

과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어 기존 대비 더 많은 회로를 반도체 기판에 배치할 수 있고 기판의 크기도 최대 20%가량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LG이노텍의 차세대 반도체용 부품 성장동력인 FC-BGA도 하이라이트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세 패터닝, 초소형 비아(Via·회로연결구멍) 가공 기술 등 독자 기술이 적용된 FC-BGA는 고집적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고성능 기판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재고 필요"

소상공인업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책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정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취임 후 경제계 첫 방문지로 소공연을 택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면서 "아울러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영역의 창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및 공제한도 상향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10대 과제'를 민주당측에 전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SPO 2025

한화 방산3사, 'APS' 등 유럽 맞춤형 솔루션 제시

〈능동방호체계〉

지상·해양·우주 첨단무기체계 소개
합작법인 설립 계약 등 현지화 박차

한화방산3사(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가 유럽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지상·해양·우주를 아우르는 첨단 무기 체계를 공개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형 방산 솔루션의 기술력을 현지에 각인시키고, 동시에 합작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으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넓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방산3사는 오는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 공동 참가했다. 한화방산3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맞춤형 방산 솔루션을 선보이며 유럽 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차와 자주포의 '최후방패'로 불리는 능동방호체계(APS)를 폴란드 시장에 최초로 공개했다. APS는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 차량의 포탑에 탑재돼 대전차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을 공격받기 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체를 무력



MSPO 2025에서 최초로 공개된 한화시스템의 능동방호체계(APS).

한화시스템

화하는 첨단 생존 장비다.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어 오는 2026년 연구개발 완료로 목표로 기술 성숙도를 높여가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APS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또한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블록-I'도 출품했다. 천광은 레이저를 목표물 표면에 직접 조사해 외부 구조물이나 내부 전자장치를 파괴하는 '하드 킬

(Hard Kill)' 방식으로 운용된다. 발사당 비용은 약 2000원 수준으로, 미사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용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레이저 사업을 양수하며 그룹 내 레이저 무기 역량을 일원화한 바 있으며 정밀 전자광학 기술과 결합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 전시와 더불어 폴란드 현지 기업과의 협

력 강화에 나섰다. 회사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 WB그룹과 다연장 로켓 '천무' 유도탄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합작법인은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과 현지 인력 채용을 추진해,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호마르-K(H 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km급 유도탄 CGR-080을 생산한다. 생산 물량은 폴란드에 우선 공급되며, 추후 양사 협의를 통해 생산 단종을 다양화하고 유럽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방산3사는 이번 MSPO 2025 참가를 계기로 ▲차세대 방호체계 ▲레이저 대공무기 ▲정밀 감시·정찰 기술 ▲현지 합작생산 체계 등 종합적 기술력을 선보이며,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와 글로벌 진출 교두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손재일 대표는 "유럽의 방산 블록화로 수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지화를 통한 시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작법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별 맞춤 현지화 전략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에코프로 신규 캐치프레이즈 공개

에코프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레이 AI, 플라이 에코프로(Play AI, Fly EcoPro)'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확정하고 제조·연구개발·품질 등 전 부문에 AI 도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는 최근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해 'Play AI, Fly EcoPro'를 에코프로의 AI 캐치프레이즈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문구는 임직원들이 즐겁고 친근하게 AI를 업무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와 함께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티엑스알로보틱스 로봇AI연구소 설립

유진그룹 계열의 로봇·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가 로봇·인공지능(AI) 융합 기술 연구에 본격 나선다.

티엑스알로보틱스는 서울강서구마곡지구에 로봇AI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로봇과 AI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기술 검증, 산업 적용, 알고리즘 개선, 데이터 기반 최적화 등 전 과정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로봇·AI 기술이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맡는다. /김승호 기자

KAI,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 선보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MSPO)에 참가해 주력 기종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SPO에서 KAI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48대 계약 체결(30억 달러 규모)하며 유럽 수출길을 개척한 FA-50 다목적 전투기를

필두로 차세대 첨단 국산 전투기 KF-21,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 소형무장헬기(LAH) 등 고정익과 회전익을 망라한 주력 기종을 선보인다.

KF-21과 FA-50에 연동될 무인 전투기(UCAV)와 다목적무인기(A

AP)를 전시하고 수리온과 LAH에 공중발사무인기(ALE)를 적용해 미래전장에서 탐지·공격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인 유무인복합체계(MUM-T)가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기자



LUX MUNDI

실존의 순간, 지구 행성 사회의 활로

“우주 시대를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세계를 열어갈 것인가.”

현대문명의 꽃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오는 우주의 소식.
‘그 모든 것’의 시원에 관한 신비로운 소식이
최근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하늘 너머 하늘’
‘그 너머 하늘...’
신비로운 창공의 품 안에서 인류는 지금 인간이 창조한
또 다른 지능과 함께 변영의 미래를 꿈꿉니다.

현대사회의 그런 상징적 현실 이면엔 또 다른 현실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구 행성의 기후 체계.
깊어지는 환경과 생태계 교란. 기아, 빈곤, 질병, 양극화의 위기,
통제 밖 인공 지능의 실존적 위험과 핵 대전 가능성...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진화 혹은 절멸’, ‘평화 혹은 붕괴’라는
유례없던 화두를 던집니다.

“미래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격변하는 문명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공존과 협력의 가치.
함께 일궈갈 인류 공동의 목표.
차이를 넘어, 경계를 넘어, 시공을 넘어 함께 모색해야 할 이 과업은
더이상 미래의 과업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전환 문명의 시대.
새 시대는 새로운 발상을 요구합니다.
인간과 생명, 문명과 사회, 지구와 우주는 결국 하나의 현실입니다.
무한한 연결과 결맞음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인류의 현실을 전일적(全一的)으로 사유하는 일은
우리가 염원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변영의 미래를 열어갈 첫걸음일 것입니다.

경희는 인류 역사의 분기(分岐)에서 Lux Mundi - ‘세계의 빛’을 향한
문명의 활로를 모색합니다.

1981년, 경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는 유엔 제3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세계평화의 날은 매년 9월 21일에 기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공공협력

- | | | |
|--|--|---|
| 1951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정초(1949년 설립),
경희의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 공표 | 1981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유엔 총회 제정안 발의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경희학원장) | 2006 UN DESA-경희대학교 교류 협정 체결 |
| 1954 농촌운동, 자연보호운동 전개 | 1984 평화복지대학원 개원 | 2009 세계시민포럼(WCF),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UN DESA-경희대 공동 개최 |
| 1965 잘살기운동 제창 | 1986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세계시민 교과서 발간 | 2011 교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
| 1965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발의 | 1990 ‘네오르네상스 운동’ 전개 | 2011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개최 |
| 1971 경희의료원 설립 | 1993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 2011 경희대학교 유네스코 석화기관 지정 |
| 1975 ‘밝은사회운동(GCS Movement)’ 선포 | 1998 ‘지구공동사회대전장’ 선포 | 2015 경희미래리포트 발간 |
| 1979 ‘21세기를 향한 세계학술회의’ 로마클럽-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공동 국제 심포지엄
‘21세기의 전망과 문제점’ 개최 | 1999 ‘1999 서울 NGO 세계대회’ 개최 | 2015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공동 주최 |
| | 2001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 | 2018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 |
| | 2006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 2024 미원평화상 제정 |

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5.9.9(화) 10:00 ~ 12(금) 18:00
입학정보 : iphak.khu.ac.kr 입학상담 : 1544-2828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경희사이버대학교

2026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5.12.01(월)~ 입학상담 : 02)959-0000 / go.khcu.ac.kr
2026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 2025.11.11(화)~ 입학상담 : 02)3299-8808 / grad.khcu.ac.kr



네이버 '자체 AI 성과', 카카오 '오픈 AI와 新시장 기회 모색'

빅테크, 상반된 AI 전략

네이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9151억... 전년비 11.7% 늘어
이용자 경험개선·매출 증대 성과

카카오 카카오톡에 생성형 AI 도입
실질 성과, 시장 기대충족 관련

국내 테크기업을 선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사업에서도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어 누가 AI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지 관심이 쏠린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체 AI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펼치면서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업 및 서비스 혁신에 집중하며 두 빅테크의 상반된 전략이 앞으로 국내 AI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되고 있다.

◆네이버, 안정적 AI 성과로 시장 리더십 굳히기

네이버의 경우 자체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9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216억원



최수연 네이버 대표

으로 10.3% 늘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커머스 부문 매출은 19.8% 성장했으며, 검색과 광고, 핀테크, 콘텐츠, 엔터프라이즈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AI 브리핑 도입 후 검색 클릭률은 기존 대비 8%포인트 높아졌고, 이용자 체류 시간도 20% 이상 늘어나면서 AI가 실질적인 이용자 경험 개선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 브리핑 활용률을 연말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



정신아 카카오 대표

고 내년에는 AI 톱을 통해 차별화된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대표 AI 모델 사업자로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버(HyperCLOVA) X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세종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GPU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기술 자립과 안정적 실적에서 오는 신뢰를 기반

으로 AI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굳히고 있다"며 "성과가 이미 수치로 확인된 만큼 향후 글로벌 확장 전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글로벌 협업으로 AI 대중화 전략 추진

카카오는 글로벌 협력 중심의 전략으로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카카오톡에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카오톡 내 AI 메이트 '카나나'를 포함해 개인화된 AI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개최되는 개발자 행사 '이프카카오(if kakao)25'에서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카카오 생태계 전반에서 AI 혁신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매출은 1조8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었고, 영업이익도 1054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특히 콘텐츠 부문 매출이 16% 이상 하락한 점이 뼈아픈 부분으로 꼽힌다. 다만 플랫폼 부문은 특비즈, 커머스, 비즈 메시지 매출

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수익을 방어했다. 2분기에는 매출 2조283억원, 영업이익의 1859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반등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한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카카오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독립적 인프라와 자체 AI 모델 보유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었던 만큼, 글로벌 협업 중심의 전략이 정부 정책 기조와 엇갈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오픈AI와의 제휴를 통해 빠른 AI 도입과 서비스 혁신을 노리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프카카오25에서 공개될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체 기술을 통해 안정적 성과를 입증했고 카카오는 글로벌 협업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전략이지만 두 빅테크 모두 AI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어 국내 AI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구글, 크롬 독점판정에도 '강제매각' 면했다

구글, 지위 유지 위해 불법적 행동
크롬·안드로이드 매각은 '과도 조치'
제미나이, 제조사 독점 탑재 금지

구글이 미국 반독점 재판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구글은 분명 독점 사업자이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과도한 조치"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기기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 체결 금지 ▲경쟁 검색업체에 검색 쿼리·사용자 클릭 기록·웹 인덱스 지도 등을 제공 ▲이를 감시할 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명령했다. 구글이 애플·삼

성 등에 지급해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본 검색 엔진 배치 비용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I'였다.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부상과 검색 시장 경쟁 구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서비스가 확산하며 크롬·사파리 같은 유통 경로 중심의 기존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은 법정에서 "사파리 내 구글 검색 사용량이 22년 만에 처음 줄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크롬 강제 매각 대신, 구글이 AI 기술까지 배타 계약으로 묶어두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특정 제조사에 독점 탑재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판결 직후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8% 급등했고, 애플도 3% 이상 상승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덕덕고·퍼플렉시티 등 경쟁사들은 제한적이지만 구글의 데이터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기회를 넓혔다. 구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삼성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아이폰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는 대가로 매년 약 200억 달러를 지급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여기에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통한 지배력 유지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독점 사건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대규모 기업 분할 요구였다. /김서현 기자 seoh@

SKT, 전국서 AI 활용·금융범죄 예방 교육

'찾아가는 행복안심스쿨' 시행

SK텔레콤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 활용 지원과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한 '찾아가는 행복안심스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선, 울진, 태안, 무안 등 전국 약 120곳을 연말까지 순회하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일상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사에서는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A.)'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범죄의 최신 수법과 대응 요령을 소개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유심 교체, 스마트폰 점검과 클리닝, 액정보호필름 교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I 상담사가 주 1회씩 3개월간 전화로 내용을 반복 안내하는 'AI 콜(AI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경계선 지능 청



SK텔레콤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활용 지원 및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한 '찾아가는 행복안심스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SKT

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과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기업 채용

카카오, 창사來 첫 전 직군 신입사원 공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카카오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군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며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인재 확보에 나섰다.

3일 카카오그룹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26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테크, 서비스, 비즈니스, 디자인, 스태프 등 전 직군에 걸쳐 시행되는 그룹 단위 첫 신입 공채다.

모집에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지원자는



이 가운데 1개 회사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와 코딩 테스트(테크 직군 한정)가 동시에 진행되며, 이후 11월 중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그룹 단위 공채인 만큼 입문 교육도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넥슨,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지원자 모집

인턴십 종료 후 정직원 전환 기회

넥슨은 올해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5기를 맞은 넥토리얼은 6개월간 직무 교육과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가 제공된다. 인턴십 종료 후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원은 정직원 전환 대상이 된다.

올해는 넥슨코리아, 넥슨게임즈, 넥슨유니버스 3개 법인이 참여하며 모집 부문은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사업, 해외사업, 엔지니어, 프로덕션, 웹기획, 경영지원 등 9개 부문이다.

채용 규모는 5년 연속세 자릿수 수준

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넥토리얼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이후 서류 검토와 직무 테스트,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8일부터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다.

넥슨은 넥토리얼과 관련해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판교 사옥에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채용의나라'를 연다. 참가 신청은 채용 웹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넥슨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연속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조2310억원으로 역대 최고 반기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7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최빛나 기자

베트남 증시 수익률 글로벌 1위 “추가상승 여력… 중장기적 매력”

한달간 VN30 수익률 14.7% 달성
“검증 필요하지만 9~10월 승격 유력
FTSE편입 확정되면 추가상승”

‘반 토막 증시’ ‘쪽박 시장’의 대명사였던 베트남 증시가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8월 베트남 VN30의 수익률이 15%에 달하면서 글로벌 증시 중 1위에 올랐다. 개별 종목도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베트남 증시 성적이 급변전하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는 투자자도 나오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기대를 가져도 좋지만, 국내보다 사정을 잘 알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VN30 지수는 8월 한 달 동안 14.7% 상승해 글로벌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VN30은 호치민증권거래소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 벤치마크로, SSI증권·사이공하노이은행·빈훙스·비엠클롬은행 등이 포함된다. 최근 랠리도 금융·부동산주 중심이었다.

승격 기대를 키운 것은 제도 개선이다. 그간 FTS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격이 좌절됐지만, 올해 봄 한국거래소 차세대 증권시스템(KRX NEXT)을 도입하며 결제 주기 단축, 외국인 계좌 개설 간소화 등 조건을 대부분 갖췄



ChatGPT로 생성한 ‘베트남 증시 상승에 환호하는 투자자들과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

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제도 요건은 충족됐으나 안정적 정착 여부를 FTSE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9~10월 승격이 유력하지만 100% 확정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관심은 ‘지금 베트남 증시에 올라타도 되는지’ 여부다.

국내 증권가는 베트남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 평가한다. 베트남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2배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을 밑돈다.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7.52% 증가했고, 2분기 상장기업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늘었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처럼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큰 시장과 달리, 베트남은 경제 성장률과 기업 이익이 증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최근

급등으로 단기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평가 매력이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급등세는 부담이다. 연초 1200~1300선 박스권을 오가던 VN30은 최근 1800선을 넘어섰다. 김 연구원은 “박스권 상단에 있어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며 “승격이 무산되면 낙폭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FTSE 편입이 확정되면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돼 외국인 비중이 늘고 추가 상승 여력도 커질 전망이 있기에 상승 여력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예측했다.

시장 사정이 어둡다면 간접 투자가 효율적이다. 현지 계좌 개설에는 증권거래코드(STC) 발급 등 절차가 필요해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박현주, 미래에셋 해외비즈니스 책무 맡아 (창업주 겸 GSO)

상반기 해외법인 세전이익 2238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그룹 창업주 겸 글로벌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사진)이 회사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렸다고 3일 공시했다.

박 회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장기 방향성 수립 및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에 대한 책임을 맡을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체 고객운용자산(AUM)이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해외법인이 운용하는 고객 자산이 272조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은 올 상반기 세전이익 2238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세전이익의 약 26%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의 각 계열사는 독립적인 전문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박현주 GSO는 해외 사업 전략 수립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글로벌 사업이 본격 성장단계에 들어섰고, 이에 박현주 GSO를 책무 구조도에 올림으로써 그의 글로벌 투자 해안을 중장기 전략 방향성 차원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비즈니스 전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선택으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책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판단”이라면서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중심) 정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10대그룹 절반 밸류업 공시… 주가 31% ↑

한국거래소, 8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
영원무역·HS애드 등 4곳 신규공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절반 가량이 밸류업 공시를 마친 가운데, 공시를 제출한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3일 공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GS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모든 10대 그룹이 공시를 제출했다. 10대 그룹 상장사 115개사 중 49곳이 공시 참여했으며,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51.2% 수준이다.

GS뿐만 아니라 8월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 공시한 기업은 영원무역, HS애드, 영원무역홀딩스 등 4개사다. 지난해 5월 제도 도입 이후 공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126개사, 코스닥 상장사 36개사 등 총 162개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메리츠금융지주, 현대모비스, DB증권 등 3개사가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는 분기별로 이행현황을 공시하는 등 총 6회 공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8월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은 27개사,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25개사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HMM(2조1000억원), 메리츠금융지주(5514억원), 네이버(3684억원) 등이다.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162개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평균 31.4% 상승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자금 증시 이동… 中 투자적기 돌아온다”

미래에셋운용, 中 증시 전략 세미나
“AI산업 확산 등 빅테크 저평가 해소
전기차·바이오테크 등 세계 선도”

현재 중국 경제가 막대한 유동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부상 덕에 10년 만에 찾아오는 투자 적기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운용은 3일 ‘지금 중국에 투자해야 하는가?…TIGER ETF가 소개하는 중국 증시 투자 전략’ 웹세미나를 열고 “중국 본토의 올해 1~7월 누적 신규 증권 계좌가 1456만개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해 대규모 자금 유입의 신호로 해석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의 정의현ETF운용본

부장은 “중국 가계의 저축액은 160조위안(3경원)으로 안전자산 기대수익률 하락 때문에 투자자금이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며 “가계 예금 대비 증시 시가총액 비율이 2014~2024년 저점이 형성된 상황으로, 상하이종합지수가 반등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AI 산업 확산과 자금을 상승으로 중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되고 증시가 재평가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중국은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인간형 로봇), 바이오테크 등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의 대표 전기차 업

체 BYD의 올해 예상 판매량이 미국 테슬라의 3배에 달하고 배터리, 반도체 등 자체 기술 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돼 안정적 부품 공급망과 낮은 생산 비용 덕에 약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바이오테크도 규제나 임상 환경이 선진국보다 여유로운 데다 임상 비용이 저렴하고 임상 시간이 짧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1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상장된 차이나 ETF 중 개인 순매수 점유율이 90%에 달한다고 정 본부장은 전했다.

/허정윤 기자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B’ 상장

KB증권, 뉴욕거래소 상장 예정

최근 천연가스 시장이 계절별 수급 변화, 국제 유가 변동, 기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으로 단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자 KB증권은 단기 하락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버스

상품을 내놓았다.

KB증권이 4일 뉴욕상품거래소(NYMEX) 상장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KB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B’를 신규 상장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KB 인버스 2X 천연가스 선물 ETN B’는 미국 NYMEX에 상장된 천연

가스 선물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기초 지수는 ‘Bloomberg Natural Gas Single 2X Inverse TR’이다. 해당 상품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이 2배로 확대되는 고위험, 고변동성 구조를 가진다. 또한, 천연가스 선물의 성과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 변동도 상품 성과에 연동되는 환노출형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한국증권금융, 광고에 중부센터 문열어

한국증권금융은 3일 수원시 광고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신규 영업점인 중부센터 개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각 증권금융 사장은 경기 남부에 소재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센터를 개소했다 밝히며 중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등) 관계자가 참석해 증권금융의 중부센터 개소를 함께했다.

증권금융은 이번 중부센터의 개소를

통해 첨단기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근로자의 자산형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중부센터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산업인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증권담보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남부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3일 김경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가운데)가 수원시 광고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의 중부센터 개소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현황



출범 3년 '푸른씨앗' 3만곳 가입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근로복지공단, 안정 운용 효과 3만 사업장·13만 근로자 가입 정부 지원·수수료 면제 힘받아

30인 미만 한정, 적용 범위 과제 취약계층·노무제공자 보장 요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가 출범 3년 만에 3만 개 사업장이 가입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계입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부 지원책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푸른씨앗이 9월 1일 기준 연 수익률 8.94%,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 사업장은 3만84개소, 근로자는 13만6525명에 달하며, 적립금은 1조

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도입 후 짧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안정적인 운용과 함께 눈에 띄는 수익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푸른씨앗의 연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9%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이 같은 수익률을 달성해 퇴직급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은 제도 성장 요인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운용 수수료 전면 면제 △간편한 가입 절차를 꼽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더뎠던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입 사업장과 적립금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실질적 혜택이 큰 푸른씨앗에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사업주가 불분명한 노무제공자 등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푸른씨앗 적용 범위가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공단은 향후 가입 문턱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와 전국 64개 공단 소속기관에서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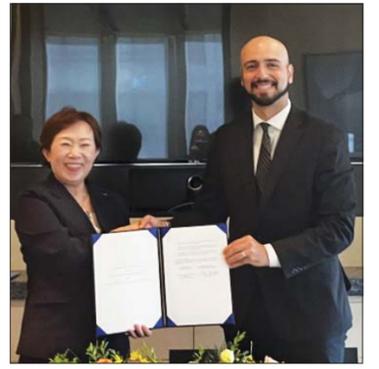
KIAT, 중남미 저탄소 전환 협력 강화

중남미 개발 등 전환 위한 협력 갱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KIAT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DB와 '혁신기술 및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전환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지역 최대 국제금융기구로, 경제·사회개발과 역내 통합을 지원해왔다. 현재 48개국에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200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이다.

양 기관은 2022년 9월 첫 협약을 맺은 이후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점 구축사업을 포함해 총 4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과나하섬 사업은 148억원 규모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전력 수급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해당 사업



민병주 KIAT 원장(왼쪽)과 안드레 소아레스 IDB 총재실장과 MOU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T

이 마무리되면서 협력 성과의 후속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갱신 협약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기반시설, 희소금속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창의적 AI 아이디어로 국민 삶 안전하게"

KEIT, 'AI 라이프 챌린지'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KEIT는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00일간 국민 참여형 개방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인 'AI 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이나 사회문제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개발자가 이를 AI 기술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정책·산업 수요 중심으로 기획되던 것과 달리, 국민 체감형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는 '상급형 R&D(P prize-based R&D)'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는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는 '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AI 기술로 구현하

는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아이디어 공모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된다. 이후 11월 3일부터 한 달간은 솔루션 챌린지가 열려 실제 구현 결과를 겨루게 된다. 최종 순위와 결과 발표는 12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총 상금 규모는 1500만 원 상당으로, 각 부문 입상자에게는 KEIT 원장이 수여된다. KEIT는 이번 행사가 생활밀착형 AI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참여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윤중 KEIT 원장은 "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영훈 "개정 노조법, 불법파업 용인 아냐"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법 첫 소통… 대기업 23곳 참석 김영훈 "경영계 우려 충분히 인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개정 노조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뒤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대기업이 참석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9월 관보제재 이후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영상 예측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총, 압참, 유로참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온 만큼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현장의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와 함께 표준 교섭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마련하고, 업종별 원하청 관계를 점검해 상생 교섭을 촉진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

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중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민관 협력 앞세워 한우 해외시장 공략

한우 수출 확대… UAE 진출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민간 업체 등과 '한우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 한우 수출 동향과 전략 ▲중동 수출 추진 경과와 계획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등록 절차만을 남겨둔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 도축장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또 두바이 런칭쇼 개최, 두바이 민관협업센터 개소, 수입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중동·동남아 등 유망시장에 더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으로 한우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참석자들은 한우 수출이 국내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시장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브랜드 마케팅 강화 ▲검역문제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 정부·aT·농축협·업계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축협과 수출업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LG HelloVision

Hello 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워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8,500원 → **월 1,500원**

일시용으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中企자금 매월 접수받고 신청 횟수제한은 없앤다

中企 자금지원계획 전면개선

기술혁신 특별자금 신설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30억 대출 소상공인 기존 사업도 지속



부산시청.

/부산시

부산시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기의 확대다. 기존에는 짝수 월에만 연 6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금 지원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대 4회까지만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지원 횟수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기업이 자금 지원을 몇 번 받았든 필요시 언제든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특별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져, 성장 가

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폭이 넓어진다.

기술 혁신 특별자금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대출금 8억원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실시하는데, 1년 차에는 1.5%, 2~3년 차에는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점이나 주사업장이 부산에 위치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혁신 성장, 기술 창업, 일자리 창출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벤처기업이어야 한다. 기술 혁

신 특별자금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지원 사업도 계속 운영된다.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특별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희망잇기 카드는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00만원 한도를 제공해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상품을

동시에 신청하면 총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 안에서 동백전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력 6개월 이상, 나이 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연 매출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과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 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으로 하면 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 특별자금 신설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공급받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이달 '구제역 일제 접종' 실시

영양군은 9월 1일부터 30일 까지 한 달간 관내 우제류 154호 6612두를 대상으로 '구제역(FMD) 하반기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구제역의 사전 차단과 지역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정례 방역 조치로, 소·염소·사슴 등 우제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가접종을 원하는 전업농가를 제외하고 소규모·고령농가·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접종·보조 인력 지원·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고 접종 효과 확인을 위한 항체가(항체 형성률) 검사를 차례대로 실시해 미흡 농가에 대한 재접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주시 뉴질랜드와 APEC 협력 논의

주낙영 경주시장이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대사를 만나 양국의 미래지향적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던 베넷 대사는 주중 뉴질랜드 대사관 경제참사관, 뉴질랜드 국회 수석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6월 주한뉴질랜드대사로 임명됐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함께 APEC 창설 회원국으로 1989년부터 활동해왔으며, 1999년과 2021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주 시장은 베넷 대사에게 경주를 소개하며 뉴질랜드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경주(경북)=김진권 기자 jinson@

김해시 공식 캐릭터 '토더기' 공모전 대상

김해시는 시 공식 캐릭터 '토더기'가 한국 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와 대전관광공사 공동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캐릭터의 인지도 향상과 활용 효과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해시는 지난 7월 '정부/지자체 캐릭터' 부문 본선에서 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7곳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경쟁하여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을 받았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경북도, AI 기반 돌봄서비스 스마트화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 AI 기반 돌봄로봇 산업육성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경북도가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스마트화 등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섰다.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실·국장, 공공기관장,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육성 전략 발표 ▲도민 경청간담회 및 국정과제 대응 세미나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운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보고 ▲실·국별 현안 및 2026년 주요 추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시된 3대 전략은 ▲AI 기반 R&D 스마트 돌봄 기술 고도화 ▲스마트 돌봄 실증·확산 허브 조성 ▲스마트 돌봄 로봇 산업 생태계 육성이 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AI·로봇 활용 돌봄 및 난임 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 안전 대응 AI 로봇 개발 ▲돌봄 로봇 보급 사업 등 10대 과제가 제안됐다.

경북도는 현재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육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도민 경청간담회와 국정과제 대응 세미나, 저출생 극복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도민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김준현 기자 kih9@

목포시, 3000억 규모 BESS 투자유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호남베스 유한회사와 '맞손'

목포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호남베스 유한회사(대표 조언우)와 3000억원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베스 유한회사는 호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인프라 개발 및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개발사 에퀴스(Equis)의 자회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남베스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자해 목포대양산단내 약 5200평 규모의 산업용지에 99MW(PCS)/700MWh급 B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BESS는 재생에너지 등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한 뒤,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이번에 구축되는 99MW급 BESS



(왼쪽부터)호남베스 유한회사 조언우 대표와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이 지난 1일 BESS 투자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에는 약 700MWh의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가 설치되며, 이는 목포시민 약 25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호남베스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내년 예산에 국비 11.4兆 반영

주요 SOC 사업 예산 대폭 반영

경남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의 경남도 국비반영액이 지난해보다 1조 5336억원 증가한 11조 1418억원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AI·R&D 중심 혁신 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AI)과 연구 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경남도가 밝힌 2026년 국비예산의 주요 성과와 특징은 ▲사상 처음 국비 10조 원 돌파 ▲정부 예산안 증가율(8.1%)을 상회하는 국비예산 증가율(16%) 달성 등으로 요약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김해·부산·양산 대중교통 환승 '완전 무료'

김해시, 오는 19일부터 전환

김해시가 오는 19일부터 김해·부산·양산지역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완전 무료로 전환한다.

3개 지역 환승할인제는 2011년 5월 21일 도입됐다. 그동안 시민들은 관할 지자체가 다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경전철, 지하철을 환승할 때 일반인 기준으로 1회 500원, 2회 200원의 환승 요금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재정 지원으로 할인해 왔다.

인접 도시 간 이동이 늘면서 김해시

대중교통 수단의 환승 건수는 2024년 기준 총 612만 2000건을 기록했다. 매년 8%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인접 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직행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환승 이용 불편과 지자체 간 마찰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와 경남도, 부산시, 양산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환승 요금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에 합의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의령군 대규모 유스호스텔 건설 착수

의령군이 224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유스호스텔 건설에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48억원과 국도비 17억원을 포함한 총 22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건립 예정인 유스호스텔은 연면적 4399㎡, 지상 4층 규모로 37개 객실을 갖추며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시설 안에는 회의와 학술대회를 위한 대회의장을 비롯해 식당, 카페, 체력단련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영업중단 손실, 고객불편도 증가 잇따른 '테러위협' 유통가 '몸살'

신세계백화점 곳곳, 하남 스타필드 등 테러 신고접수... 경찰 수색나서 3시간 영업 중단시 5~6억 피해 전문가, 재발방지 강력처벌 필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들. /뉴스시

유통업체가 잇따른 테러 위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영업을 장시간 중단하는데 따른 손실과, 고객 불편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 등의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테러의 표적이 되면서 유통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신세계백화점에 테러를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6일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신세계백화점, 11일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이달 2일엔 신세계면세점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모두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발물 테러가 반복될 때마다 유통업체의 피해는 수 억원에 이른다. 허위 신고일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위험 가능성 때문에 고객을 대피시키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테러 예고로 영업을 3시간가량 중단되며 평일 매출 기준 5~6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직접적인 피해보단 사회적 피해와 고객의 불편함이 만든 간접적인 피해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수천 명에 달하

는 고객과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2일 테러 예고에도 면세점은 정상 운영했지만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았다"고 말했다.

폭발물 테러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4235건에서 2023년 5155건, 2024년 543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말까지 2933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협박범이 느끼는 과시욕과 우월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의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걸 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얘기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협박범은 자신이 올린 글 하나에 경찰 수백 명이 통제되는 걸 보며 신나고 짜릿한 게임처럼 여긴다"고 말했다.

숨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올해 3월 공중합박죄가 신설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지만 처벌은 여

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첫 판례로 사제 폭발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람에게 벌금 600만원 형이 내려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 말까지 공중합박죄로 송치된 45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는 4명이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1명뿐이다. 5명은 약식 처분, 6명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7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교수는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태료는 한 달 안에 고지서가 나오기에 실효성이 있다"며 "법을 개정해 2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청소년 범 죄는 보호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모방 범죄자들이 처벌을 지켜보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oul.co.kr

세븐일레븐, 위챗페이 결제시 쿠폰 지급

롯데면세점·위챗페이와 맞손

세븐일레븐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맞춰 롯데면세점, 위챗페이와 손잡고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프로모션 기간(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에 위챗페이를 처음으로 결제하면 다음 방문 시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는 7위안(약 1400원) 쿠폰과 롯데면세점에서 이용 가능한 50위안(약 1만원)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위챗페이 앱 내 쿠폰함에 자동 지급되며, 세븐일레븐에서는 35위

안(약 7000원) 이상 결제 시, 롯데면세점에서는 350위안(약 7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은 K-문화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하반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의 관심도가 높은 IP나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K-편의점 문화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아동준마케팅팀 브랜드 마케팅담당은 "최근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라 국내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챗페이와 이번 업무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홈플러스, 추석 앞두고 'CRAZY 4일 특가'

생물오징어·창녕 갯마을 등 50% ↓

홈플러스가 추석을 앞두고 'CRAZY 4일 특가', 'AI 불가안정 프로젝트', '갈비 유니버스', '세계 미식여행 이탈리아편' 등 할인 행사를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홈플러스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12브릭스 유명산지 햇홍로사과 구매 시 1000점, 생물 오징어 및 알큰 햇간마늘을 구매 시 500점을 적립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국내산 생물 오징어와 서산, 창녕에서 재배한 알큰 햇간마늘은 50% 할인해 각각 2900원, 2990원에 선보인다.

이달 10일까지 AI 불가안정 프로젝트에서는 캐나다산 보떡돼(보리 먹인 돼지) 삼겹살·목심을 40% 할인하고, 10브릭스 큰 추희자두는 3000원 할인한다. '무항생제 온가족 닭볶음탕용'은 20% 저렴하다.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서 방장 햇꽃계를 전 점포 10톤 한정 990원에 내놓고, 4일과 5일엔 추가 인하해 780원에 선보인다.

갈비는 '미국산 초이스·호주청정우 냉동 LA식 꽃갈비'와 '미국산 초이스·호주청정우 냉동 짬갈비'를 각각 1만원 할인한다. '한돈 일품포크 갈비'와 '보떡돼 등갈비'도 40%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9만명에 유산균 증정... hy, 정기구독 이벤트

고객 올바른 건강관리습관 형성 도와 라이프 스타일 맞춰 배송주기 설정

hy가 정기구독 경쟁력을 활용한 '프레딧 정기구독 대(對)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hy만의 정기배송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구독 서비스의 편리함을 알리는 것이 목표다.

hy는 '프레딧 정기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자체 배송 조직인 '프레

시 매니저'와 전국 단위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발효유, 간편식, 식자재 등 다양한 품목을 무료 배송한다. 고객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배송 주기 설정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상반기에는 건강기능식품 정기구독 제도 '월간 영양'을 선보였다.

이벤트 진행을 기념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신규 고객 선착순 9만 명에게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리브 유산균 플러스 이문(1개월 분)'을 증정한다.

해당 기간 정기구독을 신청한 고객에게 140만원 상당 사은품을 0원에 구매 가능한 레플 응모권을 지급한다. 고객은 생활가전, 주방용품 등 원하는 경품 9종 중 1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무작위 추첨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600명의 정기구독 고객을 추첨해 총 6000명에게 프레딧 제품 교환 쿠폰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프레딧'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컬리 "이연복 셰프 요리 RMR로 만나요"

오는 8일까지 '미식관' 오픈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미식관'을 오픈하고 대표 셰프의 레스토랑간 편식(RMR) 상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달 8일까지 열리는 미식관의 '명

예의 전당'에서는 '목란' 이연복 셰프와 '우동카텐' 정호영 셰프, '포노 부오노' 김태성 셰프, '마마리' 송하슬람 셰프, '티엔미미' 정지선 셰프, '윤서울' 김도윤 셰프의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목란과 우동카텐은 각각 2020년과

2021년 컬리에 입점해 해당 카테고리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목란은 누적 판매량 700만 개에 달하고 우동카텐의 오리지널 우동은 후기수만 1만7000여 건에 달한다.

새롭게 합류한 셰프의 RMR 브랜드도 빠르게 팬층을 확대하고 있다. 김도윤 셰프의 '윤서울'은 면류 3종에 더해 특제 양념 소스로 만든 불고기 상품을 추가로 론칭했다. /손종욱 기자



동서식품이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카누 캡슐 테일러 in 북촌' (이하 '카누 캡슐 테일러')을 운영한다. /동서식품

동서식품 "취향저격 커피캡슐 찾아요"

종로 북촌서 '카누 캡슐 테일러' 운영 31종 캡슐 중 한개 골라 무료로 시음

동서식품이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카누 캡슐 테일러 in 북촌' (이하 '카누 캡슐 테일러')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카누 캡슐 테일러'는 카누 바리스타 머신 전용 캡슐과 타 기기 호환 캡슐 등 다양한 카누 캡슐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맞춤형을 제작하는 테일러 습처럼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맞춤형 커피 캡슐을 발견할 수 있다.

'카누 캡슐 테일러' 리셉션으로 입장하면 담당 테일러가 매칭된다. 보유한

캡슐 커피 머신에 따라 제공되는 대표 캡슐 3종을 맛보며 산미, 바디감 등 자신의 커피 취향을 기록할 수 있는 '캡슐 테일러링 노트'를 작성한다. 본인의 취향을 확인한 후 31종의 캡슐 정보가 표시된 캡슐 탐색 존에서 자유롭게 캡슐을 탐색한 뒤 중 원하는 캡슐 하나를 고르면 해당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1만5000원 체험권을 구매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나카, 마들렌, 휘낭시에 등 원하는 커피에 어울리는 페어링 디저트 2종으로 구성된 '카누 한상'과 함께 맞춤형 캡슐 7종으로 구성된 'MY 테일러 패키지', 카누 공식 브랜드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권 쿠폰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더본코리아, 글로벌 소스 'TBK'로 해외 뚫는다

서울서 'TBK' 론칭 간담회 개최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000억
독일 푸드코트 성과... 유럽 확장
백종원, 글로벌 영업 선봉장 자처
논란·실적 부진 속 반전 카드 주목

외식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과 실적 부진 속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반전을 노린다.

회사는 3일 오전 신라호텔서울에서 글로벌 B2B 소스 브랜드 'TBK(The Born Korea)'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순 소스 수출에 그치지 않고 레시피·운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글로벌 푸드 컨설팅' 모델을 앞세워 아시아·미주·유럽 등 핵심 거점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반전 카드로 꺼내든 TBK 소스는 '맛의 시작, 더본'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의 일상적 맛을 담아 전 세계 소비자와 공유한다는 컨셉으로 기획됐다.

출시 품목은 양념치킨소스·매콤볶음소스·된장찌개소스·떡볶이소스 등 7종으로 출발해 연말까지 짬장소스·LA갈비소스 등 4종이 추가돼 총 11종으로 확대된다. 소스 패키지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짧은 영상 레시피와 연동되며, 현지 조리사들이 재료 준비부터 조리 순서까지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히 제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더본코리아는 '글로벌 푸드 컨설팅'을 통해 현지 환경에 맞는 레시피, 원가관리, 폐기물 절감, HACCP·ISO 인증 기반 품질 보증, 셰프 트레이닝 등 매장 운영 전반을 윈스톱으로 제공한다.

즉, 소스 공급에 그치지 않고 메뉴



3일 'TBK(The Born Korea)' 글로벌 B2B 소스 론칭 시연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

컨설팅과 운영까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B2B 모델이다.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7월 독일 대형 유통그룹 글로버스 본사가 위치한 상트벤델 지역의 마크탈레 하이퍼마켓 푸드코트에 '비빔밥과 닭밥' 메뉴를 도입했다. 현지 식재료를 활용하면서도 TBK 소스로 맛의 균질화를 확보했고, 주방 기기와 운영 컨설팅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정착에 성공했다.

현재 독일 에쉬본 지역에 2호점 개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체코 등 인근 유럽 국가로의 확장도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 주요 리테일 기업과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백종원 대표는 이번 글로벌 소스 사업의 '영업 선봉장'을 자처했다. 미국, 유럽, 대만, 중국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직접 소스 시연회와 바이어 미팅을 주도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현지 유통사 협업을, 유럽에서는 한식 레스



더본코리아가 글로벌 B2B 소스 브랜드 'TBK'를 앞세워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선다. /더본코리아

토랑 메뉴 컨설팅을 집중 공략한다. 대만은 까르푸·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사 협력을 추진 중이고, 중국은 기업·병원 등 기관급 급식 시장을 겨냥한 소스 공급과 조리 컨설팅을 타진하고 있다.

백 대표는 "TBK는 단순한 제품 수출이 아니라 레시피와 운영까지 함께 제안하는 글로벌 푸드 컨설팅 브랜드"라며 "해외에서 거둔 성과를 국내 연구 개발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올해 들어 각종 논란과 부진한 성적표로 곤혹을 치렀다. 경찰은 최근 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논란이 불거진 백석공장 운영은 중단됐다. 여기에 본사 임원이 '술자리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다. 해당 임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기업 윤리에 대한 신뢰는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적도 악화됐다. 공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742억 원에 그쳤고, 영업손실은 225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주가는 공모가 대비 27% 이상 떨어지며 신저가를 기록했고 투자자 불만이 고조됐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과일 출점과 신메뉴 개발 지연, 본사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본코리아는 감사조직과 홍보팀을 신설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과 위생 시스템 전면 개선을 약속했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본코리아가 위기 속에서 내놓은 글로벌 B2B 소스 전략이 단순한 돌파구를 넘어 장기적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씨젠-스프링거 네이처 글로벌 감염 연구 확대 임상연구 참여·지원 박차

씨젠은 세계적인 과학 커뮤니티 리더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와 함께 '2025-2026 네이처 어워즈 MDx 임팩트 그랜트(Nature Awards for MDx Impact Grants in partnership with Seegene)'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요로감염균의 약제내성(UTI-DR)을 주제로 전 세계 과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20일 마감에 이어 내년 8월 최종 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원 모어 커피' 호응 폭발 이용량 전주비 50% ↑

스타벅스 코리아가 1500만 버디 감사 이벤트를 시작한 9월 1일부터 이틀간 '원 모어 커피' 프로그램 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용량이 전주 동요일 대비 5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리워드 회원 누적 15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9월 한 달 동안 스타벅스 카드 또는 계좌 간편결제로 제조 음료 구매 시 방문별과 함께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디카페인 카페아메리카노 ▲1/2 디카페인 카페아메리카노를 6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원 모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특정 음료를 구매해야 제공되던 쿠폰의 발급 조건이 모든 음료로 확대되자 이달 이용량이 50%나 늘어난 것이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원 모어 커피' 프로그램 이용량이 전주 대비 50% 늘었다. /스타벅스 코리아

라네즈, 보습·각질 개선 '탁월'

'립 마스크 스토베리 쇼트케이크' 엠버서더 약무 이수현 화보 공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라네즈가 '립 슬리핑 마스크 스토베리 쇼트케이크'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입술 관리 제품인 립 슬리핑 마스크의 신제품으로 세 가지 향을 층층이 담은 '트리플 레이어 제형'을 갖췄다.

라네즈에 따르면, 부드러운 바닐라 케이크, 달달한 딸기 크림, 상큼한 생 딸기 향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C와 보습 효능이 좋은 코코넛 오일을 함유해 입술 각질 제거와 건조함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라네즈는 브랜드 엠버서더로 인기 가수 약무의 이수현을 선정하고 새 화보를 공개한다. 이수현과 협업해 이번 신제품만의 차별점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화보에서 이수현은 사랑스러



라네즈 브랜드 모델로 뽑힌 이수현이 '립 슬리핑 마스크 스토베리 쇼트케이크'를 소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움, 호기심, 자유롭고 생기 있는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네즈는 이수현의 매력적인 음식과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브랜드 전반의 가치와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셀트리온, '아이덴젤트' 장기 임상 입증

52주 임상서 동등성·안전성 확인 글로벌 허가 잇따라 상업화 속도

셀트리온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의 글로벌 임상 3상 52주 결과가 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안과학 및 치료(Ophthalmology and Therapy)'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연구 결과는 셀트리온이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3상의 52주 장기 임상 데이터로, 해당 임상에서는 아이덴젤트 투약군과 오리지널 의약품 투약군 간 유효성에서의 치료적 동등성과 장기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검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투여군 모두 최대 교정시력(BCVA)이 베이스라인 대비 16주차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된 후 52주차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해, 아이덴젤트의 장기적인 치료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중심망막두께 평균 변화량

등 다른 2차 유효성 평가변수와 안전성 측면에서도 두 투여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해에도 안과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인 '시력 및 안과학회(ARVO)'와 '유럽망막학회(EURETINA)'에서 아이덴젤트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아이덴젤트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를 비롯해 유럽(EC), 호주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허가 획득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도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상업화 절차를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덴젤트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이리아는 블록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95억 2300만 달러(약 13조3322억원)를 달성했다.

/이세경 기자

카카오헬스케어-노보노디스크 AI기반 앱-환자지원 연동 비만·당뇨 환자 디지털관리

카카오헬스케어와 한국노보노디스크 제약이 비만·당뇨병 환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두 번째 전략적 협력이 나섰다.

3일 카카오헬스케어는 글로벌 제약사 한국노보노디스크 제약과 비만·당뇨병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 송파구 한국노보노디스크 제약 본사에서 열렸다. 해당 자리에는 황희카카오헬스케어 대표와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대표가 참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Since.1976

편안함이 다르다 GRAND BED



 **그랜드침대**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사진)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출국한다고 3일 밝혔다. 귀국일은 10일이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 '전체 총재회의',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KT, 내일 도심형 문화행사 'K 페스타' 열린다

KT가 5일 광화문 광장에서 도심형 문화 행사 'K 페스타'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T의 전신인 한성전보총국 개국 14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주요 일정은 5일, 6일, 22일에 진행된다. KT는 광화문 놀이마당을 'KT 웨스트 파크'로 꾸며 누구나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KT



LG U+, 재난현장 아동 위한 '이동형 놀이터' 개발

LG유플러스는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어린이날다 사회협동조합과 함께 재난현장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터'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심리상담 중심으로 이뤄져 온 기존 재난구호 활동에 놀이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1조가 규정하는 아동의 '놀 권리'에 따라, 놀이가 트라우마 회복과 일상 복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LG유플러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12가구 집고치기 봉사활동

3월 농협에 따르면 임직원들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학동리마을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어 관내 농가 12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오른쪽)과 박덕홍 국회의원, 정영철 영동군수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



BNK부산은행, 저소득 가정 아동에 7.8억 지원

BNK부산은행은 부산시교육청에 '저소득 가정 자녀 돕기 기금' 7억88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부산교육사랑카드'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해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하고 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왼쪽)이 기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포스코그룹 “제도·문화·기술혁신으로 안전일터 조성”

안전 전문 컨설팅사 SGS와 ‘맞손’ 이달 포스코이앤씨 안전진단 착수 안전 전문 회사 설립·운영 협력도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안전 전문 컨설팅사와 손잡고 안전 경영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SGS와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GS는 건설·플랜트 안전 진단 분야에 특화된 세계 최대 규모의 컨설팅 기업으로, 전세계 2600여 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포스코그룹 건설 부문의 안전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등 선진 프로세스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달 내 포스코이앤씨 안전 진단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안전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교류하고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안전 전문 회사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미 지난달 유럽



포스코그룹이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SGS사와 포스코그룹 안전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MOU 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현지에서 SGS와 최신 안전 관리 기법과 유럽의 대표 정책을 공유하며 글로벌 벤치마킹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인화 회장은 “제도와 문화, 기술

전 분야를 과감히 혁신해 포스코그룹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삼성전자, 초대형 미디어아트 DOOH 선포

(디지털 옥외광고)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주제

삼성전자가 서울역을 시작으로 서울 주요 랜드마크에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을 주제로 한 초대형 미디어아트 디지털 옥외광고(DOOH)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서울역에서 역사 내부를 파노라마 형태로 둘러싼 초대형 미디어아트 광고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총 길이 91m, 높이 5.5m, 면적 610.5㎡의 압도적 크기로 몰입도 높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미디어아트는 한국의 예술적 요소를 강조해 병풍 모양으로 펼쳐지는 갤럭시 Z 폴드7, 민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갤럭시 Z 플립7 등 전통적 이미지와 최신 갤럭시 AI 기능을 결합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가 서울역에서 진행하는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초대형 미디어아트 디지털 옥외광고 모습. /삼성전자

‘생성형 편집’으로 남자 모델이 입은 옷을 바꿔보고, ‘제미니AI 라이브’를 활용해 남자 모델과 여자 모델이 각각 가장 어울리는 것과 탱기를 추천받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냈다. 삼성전자는 최근 K컬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전통 민화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풀더블 신제품과 갤럭시 AI 기능을 주목도 높은 방식으로 알린다는 전략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코이카, 협력 중소기업에 ESG 경영 컨설팅

동반위와 지원사업 ‘맞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전문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코이카와 ‘2025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반위는 높은 평가를 받은 협력사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보유업체는 ▲금리우대(국민·기업·신한·하나·경남은행)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기회 ▲환경·에너지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이카는 동반위 선정 ESG 우수 중소기업에 공적개발원조(ODA) 입찰 및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ODA 시행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 인증을 획득했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발전을 돕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책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간 동반위원장은 “코이카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을 확립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성장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영홈쇼핑,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기부

기부금 2145만원 전달

공영홈쇼핑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온기를 전달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이종원 대표이사 직무대행,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및 임직원들이 모은 기부금 2145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기부금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충남·전남·경남 등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4월에도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산불 피해 성금 4000만원을 임직원 모금과 함께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경북 산불 피해 기업 대상 상담회 개최, 수해 지역 지원



이종원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직무대행(왼쪽)이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위한 온라인몰 특별관 개설 등의 정책 지원도 펼쳤다. 이종원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복구 현장에서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지역민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성금 기부와 더불어 피해 기업·생산자의 판로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체계적 직업훈련 구축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서 김경아 사장, 노동부 장관 표창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사장이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사업주, 우수 숙련기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일 열린 ‘2025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통해 시상이 이뤄졌다. 김경아 사장은 업무의 20%를 교육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사내 가이

드라인을 바탕으로 체계적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들이 바이오 업계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학 교육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 별도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문화예술통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문화예술교육과장 김현정 △콘텐츠편역국 문화기술투자과장 김경환
-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치세과장 민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 △충북지방국세청 부가치세과장 김광대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 △안양세무서장 박수현

자율주행차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아성욱

스마트카 'TALK'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교통안전, 산업 경쟁력, 도시 혁신을 포괄하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시장 시장조사기관인 프레세텐스 리서치의 2024년 자율주행차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1583억 달러(약 230조 4000억원) 규모에서, 2032년까지 2조 3539억 달러(약 3425조 6000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AI, 머신러닝, 센서 기술, 연결성의 지속적인 발전은 자율주행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인식, 의사 결정, 전반적인 시스템 신뢰성의 향상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1년 0.5%에서 2030년 54.1%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AI·SW융합, E2E(End-to-End)모델,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등 자율주행 핵심기술의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 되고 소비자 인식변화에 따른 자동차는 소유대

상에서 이동서비스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SDV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지, 판단, 제어 등의 기술이 지속 고도화되면서 완전자율 시대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산업·정책전반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와 완성차, 부품사, 플랫폼사 등 산업주체간 기술격차와 협업 부재등의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다.

기술발전과 현실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국가차원의 전략적 재정비가 시급하며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E2E, SDV 등 최신 글로벌 기술트렌드를 반영하고 공백기술을 발굴해 연계 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한 정책 수립과 기술, 인프라, 제도, 서비스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국민의 이동경험 혁신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정책 이행기반, 실현 가능한 정책적 실효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해서

는 피지컬 AI 기반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 기준조화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UN 산하 국제자동차기준 포럼인 WP.29에서는 자율주행 안전을 담당하는 GRVA, 그리고 그 산하AI 워킹그룹(TWG on AI)이 활동 중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G/6G 통신망, K-City, 자율주행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자율주행 인증 체계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과 방향성을 위해 기능 중심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AI 안전성 평가의 정량화된 지표 도입, AI 윤리(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의 기술표준화 방안등을 준비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부대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리테일' 왕좌의 게임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오랫동안 키움증권의 뒤편이었던 증권가의 '리테일 왕좌'는 이제 다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토스증권이 2021년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리테일을 흡수하고 있고, 최근에는 메리츠증권이 사상 초유의 '수수료 전면 무료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미를 모시고 있다. 사실상 키움증권의 독주였던 '리테일 왕좌의 게임'이 본격화된 셈이다.

토스증권의 부상은 업계가 인정하는 가장 큰 변수다. 지난 3월 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키움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토스증권 커뮤니티는 리딩방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토스증권처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주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사실상 토스증권에 대한 견제가 들어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토스증권의 성장으로 가장 위협을 느낄 증권사가 키움증권이라고 꼽는다.

토스증권이 특히 잘하고 있는 해외주식에서 그 성장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간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 부문 점유율 1위를 수성해 왔지만, 지난해 11월 토스증권에게 선두를 빼졌다. 그리고 경쟁자에는 메리츠증권이 추가됐다.

메리츠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몇 년에 걸친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선언하면서 리테일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메리츠증권의 슈퍼365예탁자산은 지난해 10월 9200억원대에서 10조원까지 불어났으며, 해외자산도 이벤트 시행 전 1650억원에서 5조원을 상회하게 됐다.

문제는 속도전의 그늘이다. 파격적인 마

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짝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벤트를 통해 얻어낸 투자자인 만큼, 수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쟁 증권사들은 메리츠증권의 '제로 수수료'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수수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내실도 충분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사 전산사고는 429건으로, 금융권 전자 금융 사고 피해액의 89%가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온라인 기반 증권사인 키움증권과 토스증권 등은 잦은 전상장으로 지적받고 있다.

리테일 시장의 주도권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왕좌'를 지킬 자격은 속도가 아니라 번덕스러운 재미의 발견을 오래 붙잡을 수 있는 안정성과 신뢰에서 결정될 것이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4일 (음 7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믿고 의지하던 친구와 의견대립이 생긴다. 48년생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60년생 맡은 일을 훌륭히 완수. 72년생 이간질에 대꾸하지 말라 제풀에 몰려나게 된다. 84년생 돌아다니며 시비 일으키지 말도록.



37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때리면 그만. 49년생 외출할 때 차량양보로 조심. 61년생 언쟁에 휘말리게 되니 본전 찾기 힘들다. 73년생 다림질 헛바퀴 돌리듯 단조로운 하루. 85년생 신발장이 어지럽고 혼탁하면 집안 분위기가 혼탁해진다.



38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50년생 우리 개는 순해오 하지 말고 키우려면 동물에 대한 에티켓을 꼭 지켜야. 62년생 2시 약속이 취소가 된다. 74년생 기회는 균등하다. 86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



39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51년생 우물에서 송눈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63년생 다른 사람의 귀환을 헛뜯지 말고 자기를 다스려볼 것. 75년생 아침부터 음주가 웬 말. 87년생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40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52년생 재물을 얻는데 때가 있으니 기본에 힘써볼 것. 64년생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76년생 모든 일에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88년생 좋은 일이라도 금방 달려들지 말도록.



41년생 잔치에 초대받음. 53년생 오전에 등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65년생 집안 제삿날이니 일찍 귀가하라. 77년생 한편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올 수도 있음이다. 89년생 이직은 후회를 남게 되니 실력 키우자.



42년생 나누다 보면 누릴 수 있다. 54년생 초기에는 절약과 저축으로 부의 기본을 만들자. 66년생 조직에서 나란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접도록. 78년생 예부터 아름다운 미인 중에는 기구한 운명이 많다고 했다. 90년생 경제적 이익을 본다.



43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55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오는 격. 67년생 겹질을 깨뜨리고 새롭게 진술. 79년생 성공하려면 교생이 따르는 것이다. 91년생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배우자의 일이라 할지라도.



44년생 시대에 뒤떨어지고 어리석기 말도록 각주구검뫼舟해. 56년생 목표가 없으니 밤길을 헤매는 것 같다. 68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도달. 80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92년생 자연에서 노니는 즐거움이 있으니.



45년생 집안 대청소는 심기일전 도움이 된다. 57년생 이기심으로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린다. 69년생 깊은 밤길을 홀로 다니지 않도록. 81년생 인생의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세분하여 세우자. 93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46년생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차레가 있어야. 58년생 부모님께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당황. 70년생 돈과 부귀는 중요한 것이다. 82년생 결국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기회는 오기 마련. 94년생 해 주고도 욕먹는다는 말이 실감 나는 날이다.



47년생 새벽꿈에 조상님을 뵈고 오다. 59년생 상대를 먼저 존중하면 마음을 얻는다. 71년생 오후에 미팅 약속 생김. 83년생 부귀와 빈천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지혜로 극복이 된다. 95년생 운명론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은 있다.



김상회의四季

뱀巳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에서 사,뱀에 대한 인연을 풀어보겠다.丑피;소자라.巳뱀피;뱀미꾸라지 드렁허리 구렁이 지렁이申;고양이 원숭이,酉피;닭 닭이다.뱀은 다른 개체와 교미를 통해 번식한다.약 8시간 정도 정액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교미가 이루어진다.그래서인지 뱀 지렁이등은 모두 정력제로 주목받는다.한자를 보면 지붕 아래 다른 건 없어도 돼지시자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상고시대 부터 뱀은 두려운 존재였다.뱀과 돼지의 상극관계를 발견하여 집에 돼지를 길러 뱀의 침입을 막은 것이다.크레오파트라가 나일강 계곡에서 미용을 위해 지렁이를 양식했다는데 지렁이는 오래전부터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한다.유럽에서는 고급립즈(Lip-gloss)에 지렁이의 혈액색소와 체표액을 가공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그래서인지丑는 화장품의 물상을 짓는데 이를 흡수하여 식욕食祿을 구하는 팔자는 곤잘 생업生業과 연계될 때가 있다.우음수성유牛飲水成乳 사음수성독蛇飲水成毒 같은 물을 마셔도 소에게는 젖이 되고 뱀에게는 독이 된다.

사람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것이다.성질이 다른 가운데 소와 뱀은 흡수하는 것이다.뱀巳는 소丑에서 양육養育된다.뱀은 소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丑자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물어뜯기 쇠붙이도 끊어버린다고 할 만큼 물어뜯기 선수인 자라는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구렁이의 머리와 몸통을 무차별 물어뜯기로 물리친다.巳뱀과 丑소의 승은 현무玄武(검을현,곤썰무;북쪽수방향)의 물상이다.암컷인 거북의 머리와 수컷인 뱀의 머리가 원을 그리며 교차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암수가 서로 숨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현무는 생명의 끝 곧 죽음을 알리는 북쪽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북쪽이 검은색을 나타내 현호이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피자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6	2	9	1	5			3	
	5		3					4	1
								9	
5								9	6
2									7
1	2								5
7									
3	8				6			5	
6			5	4	1	3	2	8	

	4	3			5	8	7		
8	3				9				
		5							1
1				2		9			4
	6		4		7				8
4		8		9					6
2							5		
			7					4	8
	1	4	5				2	9	

8	2	9	1	9	6	2	9		
7	9	6	9	2	1	8	8		
2	1	9	6	8	9	8	7	2	1
2	9	8	6	8	7	2	1		
2	8	7	9	1	9	6	2		
9	6	7	2	8	2	8	1	9	
6	9	1	2	1	7	9	8	1	9
1	7	2	8	9	8	2	9	6	
8	8	2	9	1	6	2	9	7	

8	6	2	8	9	9	7	1	2	
8	7	9	2	8	2	1	6	9	
2	1	9	8	1	6	9	8	2	
9	9	2	1	6	8	8	8	7	
2	8	1	2	9	7	6	9	8	
7	8	6	9	2	8	2	9	1	
1	9	2	7	8	9	9	2	6	
1	9	7	6	2	1	2	8	8	
6	2	8	9	1	2	8	7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작년 수능 수준 난이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 출제

9월 모의평가

**EBS 교재 연계율 50% 이상 기록
사고력·독해력 필요 문항 증가
“수험생, 시간관리 능력 점검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6월 모의평가보다 일부 영역의 난도를 높여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교사단과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교육과정 핵심 개념에 기반해 출제됐다”며 “공교육 학습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지만 정확한 독해력과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도 변별력을 확보해 수험생들이 기본기 학습과 시간관리 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국어, 공교육 기반... 킬러문항 없어**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고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독서·문학)과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으로 출제됐다. 지문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단순해 학교 수업으로 익힌 독해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킬러문항은 배

제됐다.

독서에서는 예술·과학기술·사회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됐고 문학 작품 8편 중 4편이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됐다. 선택과목도 연계교재의 문항 아이디어와 개념을 활용했다.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SF 영화 사례 적용을 다룬 8번, 오디오 신호 압축을 다룬 17번, 갈래복합 24번, 고전소설 34

번, 제안서 계획과 초고를 연결하는 39번, 격 조사·보조사 결합 유형 분석 38번이 꼽혔다. 전체 문항의 51.1%가 EBS 교재와 연계됐다.

◆ **수학, 과목별 난이도 조정... 변별력 확보**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해 변별력을 확보했다.

수학 I에서는 지수함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등 11문항이 출제돼 기본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했다. 수학 II는 극한·연속, 미분, 적분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고 과도한 계산은 배제됐다.

미적분은 무한등비급수와 적분을 다룬 29·30번이 쉽게 출제돼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며, 기하는 평면벡터를 다룬 30번이 고난도로 꼽혔다. 확률과통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며 곱셈정리와 여사건을 활용한 문항이 상위권 변별력을 높였다.

전체 문항 중 절반인 15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됐다.

◆ **영어, 기존 출제기조 유지**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나 6월 모의평가보다는 난도가 높아졌다. EBS 교사 평가단은 “지문과 선택지를 충실히 읽으면 해결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됐으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 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신유형 없이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 추상적인 지문은 배제돼 공교육 학습만으로 대비할 수 있었고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늘었다는 게 교사단 분석이다.

EBS 연계율은 55.6%로 전체 45문항 중 25문항이 연계됐으며 듣기·말하기는 교재 대화와 담화를 재구성한 문항이, 읽기·쓰기는 주제와 소재를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음악 이론과 색의 순환성을 다룬 21번(함축 의미 추론), 글 초반 빈칸 배치로 글 전반 이해가 필요한 34번(빈칸 추론), 단락 연결 단서 파악이 어려운 37번(글의 순서), 역사 유물 논리적 공백 파악이 필요한 39번(문장 삽입)이 꼽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점자 서비스는 GH 대표 홈페이지 내 사업·청약·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문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면 전자 콘텐츠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이용자는 점자 단말기를 연결해, 각 콘텐츠 옆에 마련된 ‘뷰어 버튼’을 클릭해 바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전자점자파일(BRL)과 점자프린터용 파일(BRF)을 내려받아 내용을 읽을 수 있다.

GH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 디지털 격차 없는 정보 환경(디지털 배리어 프리)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적 디지털 접근성 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전자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GH는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한 웹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강화해, ESG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교육청 “서울 교육정책, 직접 참여하세요”

11개 교육지원청 순회 공론장 개최
정근식 교육감, 질의응답 등 현장소통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직접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교육+플러스 교육지원청 학부모 공론장’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전면 개최한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론장은 민주적 학교자치와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11개 교육지원청이 순회하며 총 2200여 명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고, 협의회·연수·워크숍·공론장 등을 운영해 학부모의 자발적 학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정책을 내년 서울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장은 4일 북부교육지원청에 이어 강동송파(9월 16일) 중부(9월 25일) 남부(10월 14일) 성동광진(10월 21일) 서부(10월 30일) 강남서초(11월 4일) 성북강북(11월 7일) 동부(11월 25일) 강서 양천(12월 2일) 동작관악(12월 9일) 순

으로 열린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150~2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현안별 심층 토론을 벌인다.

정근식교육감(사진)은 북부를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 공론장에 모두 직접 참석해 학부모와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정 교육감은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며 “학부모의 지혜와 경험이 더해질 때 서울교육은 더욱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교육청·학교·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5 | 해질 / 18:57

9월 4일 (木)
음력 : 7월 13일

수도권 날씨

24~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학교급식소 위생 점검... 가을철 식중독 막는다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봄 개학철 점검을 마

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

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학교 급식에 따른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홍보활동도 이어간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김정은, ‘열차’로 베이징行... 태영호 “늙은 전용기 탔”
▲北김주애 국제사회 첫 눈도장... 외신, 후계자 신고식 주목

▲구글, 美 검색 독점 소송서 기업 분할 피해... “AI 시대 경쟁 반영”
▲“日서 韓여성 살해한 韓남성, 현지 당국엔 접근 않겠다” 서류 제출해



▲日이시바 ‘정치 명운 결정’ 조기 총재選 열리나... 아소파 압박
▲시끄러운 도로변 살면 뇌졸중 위험 12% ↑... 덴마크 연구진 경고



유통가
잇따른 '테러위협'에
영업중단 손실
너



Life

더본코리아
글로벌소스로
해의 뽕는다
L2



맥주 한잔에 문화체험까지... 부드러움에 담긴 149년 이야기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삿포로맥주

149년 역사 있는 일본 최초의 맥주 브랜드
한국시장서 日맥주문화 전하는 아이콘으로

성수동에 '프리미엄 비어스탠드' 매장 오픈
전문 탭퍼가 제공하는 생맥주 '색다른 경험'
따르는 방식별 목넘김 다르게 느낄 수 있어

149년 역사를 지닌 일본 최초의 맥주 브랜드, 삿포로. 타협하지 않는 장인 정신과 깔끔한 목 넘김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도 히트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맥주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프리미엄 비어스탠드 같은 체험 공간을 열고, 건강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을 내놓으며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혀온 전략이 주효했다. 삿포로맥주는 이제 하나의 술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에게 일본 맥주 문화와 브랜드 스토리를 전하는 상징적 아이콘이 되고 있다.

2019년 4만7331t에서 2020년 6490t까지 감소했던 일본 맥주 수입량이 올해 상반기에만 4만3676t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예스 재팬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일본 맥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맥주 성장세에 국내에서도 일본 맥주 브랜드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삿포로맥주의 성장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삿포로맥주의 소비자 점점 확대

삿포로맥주는 한국 시장을 진출한 지난 2011년부터 다양한 제품 출시와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에서 가장 빠른 트렌드를 만나 볼 수 있는 성수동에 첫 해외 상설 매장인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스탠드'를 오픈했다.

다양한 브랜드가 팝업 매장을 오픈하는 성수동에서 팝업이 아닌 상설 매장을 오픈한 것은 삿포로맥주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삿포로 국제사업본부 아시아퍼시픽 & 유럽사업부 이노우에 타이스케 부장은 '삿포로맥주의 해외 판매량 중 한국 판매량이 독보적으로 높다'며 한국 시장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스탠드 매장은 삿포로맥주의 프리미엄 생맥주와 삿포로맥주가 제안하는 브랜드 경험, 일본의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본 긴자에 위치한 '삿포로 생맥주 블랙 라벨 더바' 매장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본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서서 마시는 '타치노미'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맥주는 1인당 3잔까지만 판매해 짧은 술자리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은 물론이고 삿포로 맥주를 즐기고자 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스탠드 매장



1 | 지난 7월 서울 성수동에 오픈한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스탠드'에서 소비자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2 | 성수동에 오픈한 첫 해외 상설 매장인 '삿포로 프리미엄 비어스탠드'.
3 | 비어스탠드 매장에서 즐길 수 있는 삿포로 생맥주. 전문 탭퍼가 직접 제공하는 생맥주는 따르는 방식별로 색다른 목넘김을 맛볼 수 있다. /엠즈베버리지



올해 6월, '삿포로 생맥주70' 정식 출시 건강 트렌드 맞춰 당질·퓨린 70% 줄여 다양한 선택지, 높은 품질로 브랜드 강화

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생맥주는 전문 탭퍼가 특별히 준비한 1.1mm의 두께의 얇은 잔에 직접 따라 제공한다. 따르는 방식 별로 '퍼펙트 퓨어'와 '클래식 퓨어' 두 종류로 구분해 서로 다른 목 넘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변화하는 트렌드 제품들로 인기몰이

올해 6월에는 '삿포로 생맥주 70(이하 삿포로 70)'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다. 삿포로 70은 일본 현지에서 '삿포로 생맥주 나나마루' 이름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일본 맥주 중에서는 최초로 알코올 도수는 유지하면서 당질과 퓨린을 70% 감소시켜 일본내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제품으로 유명하다. 작년 4월과 10월 한국에서 진행된 한정 판매 당시 모두 완판을 기록했던 삿포로 70은 지난 6월 정식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매진을 기록하며 판매처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삿포로 70의 인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크게 트렌드와 품질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는 건강이다. 제품의 성분과



구성 요소를 신경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당분이나 특정 요소를 제거 또는 배제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국내의 주류기업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삿포로 70은 7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거치며 약 300번의 테스트를 진행,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려 일반 맥주의 대체제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삿포로 70의 성공을 통해 일반 맥주 외에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삿포로맥주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품 라인업 확장 및 축적된 양조 기술력,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꾸준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한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프리미엄 일본 맥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삿포로 맥주를 수입 유통하는 엠즈베버리지 관계자는 "삿포로맥주는 일본 맥주 호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소비자 접점 확대와 트렌드에 맞는 전략적 제품 출시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일본 문화의 확산과 맥주시장 성장 속에서 삿포로맥주를 꾸준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정후, 멀티히트에 3출루 1득점...샌프란시스코는 3연승 /사진 뉴시스
▲애틀란타로 이적한 김하성, 유격수 선발 출전으로 첫 안타 신고

▲폰세, 또 하나의 대기록 도전...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눈앞
▲주장 손흥민, 3개월 만에 홍명보호 합류...밝은 미소로 훈련 돌입

▲달아나는 LG·추격하는 한화...확대엔트리가 시즌 막판 판도 바꿀까
▲사격 권은지, 홍범도장군배 10m 공기소총 한국 신 2개 달성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